

# 北方地域 우리文學 遺産의 調査 研究\*

— 延邊地域을 中心으로 —

■ 中國朝鮮族 說話의 研究

蘇在英

■ 詩歌文學 遺産의 國文學的 位相

曹圭益

■ 附錄：研究目錄

■ 英文抄錄

蘇在英 · 曹圭益

清朝로부터 따질 경우 조선족의 본격적인 滿洲 移住史는 이미 1세기를 훨씬 넘어섰고 지금 그 숫자 또한 200만을 헤아린다. 비록 남의 땅에 뿌리를 내리긴 했으나 그들이 겪어 온 삶의 과정은 본토에서 살아 온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개항 이후 지금까지 여러 이민족으로부터의 무차별한 문화적·정치적 침탈에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이 이 땅의 사정이었음에 반해 만주의 조선족들은 비교적 온전하게 우리문화를 보존해 온 셈이다. 중국내 조선족과의 교류가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타율적 결과이긴 하지만, 그동안 단절되었던 상황 하에서 이루어졌을 문화적 지속과 변이의 총체적인 것을 결산하고 점검하여 민족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확인해야 할 적절한契機인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어느 민족의 문화이든 지속과 변이는 문화 발전의 기본 원칙이다. 그 가운데서도 문학만큼 그러한 현상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 분야는 드물다. 특정한 시기, 특정한 민족 집단의 문학에는 대체로 일관된 공동체적 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 이후 지속된 만주 이민의 목적이·직접적 항일 투쟁에 있었든, 대부분의 농토를 수탈당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삶이나마 연장하기 위해서였든, 그 저변에는 이민족에 대한 민족 공동체적 증오와 끈질긴 삶의 의지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것이 만주로 이주한 우리 민족이 경험한 역사적 특수성이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두 가지의 상반된 문학적 경향이 나타났다고 본다. 하나는 失郷意識의 문학적 형상화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한 반사적 경향으로서 자민족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집착이었다. 전자는 비극적인 양상으로

\* 본 論文은 90年度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부설연구소)의 지원에 의한 것임.

표출되기도 하였고 투쟁적인 양상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즉 우리는 그들이 남긴 문학을 통하여 실  
 향의 현실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하나의 경향과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한 증오라는 또 하나의  
 경향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후자는 중국 내의 여타 소수민족들과 달리 자  
 신들의 문화를 철저히만큼 보존해 오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수천편에 달하는 口碑文學작품  
 들을 지금껏 원형에 가깝게 전승해온 사실은 자민족 문화에 대한 긍지와 저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국내 학계의 일부에서는 이들의 문학을 ‘망명문학’ 혹은 ‘이민문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일부 조선인 학자들은 이것을 중화민족문학의 구성부분인 동시에 조선민족 ‘整體文學’  
 의 일부분이라는 二重性을 띤 문학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sup> 그러나 두 견해들 모두 지나치게 정치적 상황  
 등 외면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춘 느낌을 준다. 문학작품 만을 관찰의 대상으로 할 경우 당대의 본토  
 문학보다도 오히려 잘 보존된 민족 정서와 그 형상화의 실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것은 이  
 시기 한국문학의 당당한 한 부분이며, 그동안 어떤 면에서 파행적으로 기술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는  
 한국현대문학사의 공백 부분을 채워야 할 귀중한 정신적 자산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 대한 정치적 개  
 방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많은 제약들이 엄존하고 있다. 폐쇄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경직성은 그 지역 주민들의 개방 욕구는 물론 이 지역의 문학 유산을 발굴하고 정리하려는 우리의  
 탐구욕에도 일종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 발간된 많은 誌·紙들의  
 상당 부분을 우리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들은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  
 제들이다. 역사의 왜곡된 흐름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민족의 정신사를 치유하고, 특히 불완전한 우리의  
 문학사를 보완하기 위한 至難한 작업의 초입에 서 있음을 우리 필자들은 공감한다. 본 연구는 그 작업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첫번째 글의 필자 蘇在英은 이 지역의 구비문학 중 양적으로 방대한 설화를 중  
 점적으로 살필 것이다. 조선족 설화를 개관하고 소재와 주제, 변이 양상 등을 분석할 것이며 이 지역  
 에서 수집된 자료들의 목록을 첨부할 예정이다. 두번째 필자 曹圭益은 이 지역의 시가문학을 창작시  
 가와 구비시가로 나누어 그 장르적 특질 및 주제의식과 이미지 등을 살피고 자료들을 개관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업적들을 부록으로 실어 앞으로의 연구에 도  
 움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 앞서서도 밝힌 것처럼 본 연구는 이 방면 연구의 시작인 만큼 아직 완벽을  
 기할 단계는 되지 못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나머지 작업은 추후로 계속 보완될 것이다.

# 中國朝鮮族 說話의 研究

蘇 在 英\*

## 目 次

- |              |               |
|--------------|---------------|
| I. 머리말       | VI. 항일설화      |
| II. 조선족설화 개관 | VII. 설화의 변이양상 |
| III. 식물설화(꽃) | VIII. 맺는말     |
| IV. 지명연기설화   | 부록 : 작품목록일람   |
| V. 본격담(인간관계) | 참고논문          |

## I. 머리말

한반도와 이웃하고 있는 이웃 일본땅에는 약 80만, 거대한 중국땅에는 그 배가 넘는 200만의 조선족이 살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 이른바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이땅에서 건너 간 이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문화적으로도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족백년사화> 등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민족이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청나라의 쇠국정치 하에서 오늘날의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이주해 황무지를 개척한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으며, 일제 치하에서 이른바 간도이민의 고난사를 추적할 수가 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가 설치된 것은 1952년의 일이다. 현재 연변 자치주에는 연길·도문의 두 시와 연길·돈화·화룡·훈춘·왕청·안도 등 6개 현이 있으며, 17개 진과 94개 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곳의 조선족의 인구는 약 80만에 이르며 전주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연변조선족자치구개황). 따라서 조선족에 대한 민속조사도 일찍 시작되어 1956년에는 이미 민간문예연구기구가 설립되었으며, 60년대에는 동북 3성의 조선족 거주지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무렵에 수집된 자료를 모아 <민간문학자료집> 1·2집으로 간행된 설화만도 2400여편에 이르는데, 10년 내란(문화혁명)을 겪는 동안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그후 80년대 후반에 와서 이 작업이 다시 시작되어 90년대 초까지 <민간문학자료집> 3·4가 출간되며, <인삼처녀>(62)·

\*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 教授

〈천지의 맑은 물〉(62)·〈백일홍〉(79)·〈천도복숭아〉(80)·〈연변의 견우직녀〉(82)·〈짜개바지〉(84)·〈불초초〉(84) 등 필자 소장 20여책의 자료만도 그 수가 천여 편이나 되니 이를 망라하면 근 4천 편에 이르는 자료가 채록되었다는 계산이 된다. 정신문화연구원의 구비문학대계 82책에 수록된 설화 1만5천편과 비교하면 연변지역 조선족의 채록설화는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니다.

초기의 작품들은 주로 조선족 개척기에 청나라의 위세에 대한 강자와 약자, 악과 선의 대결 구도로 나타나며, 일제 하의 작품들에 오면 그 강자와 악에 대한 대상이 일본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구도로 변모되고 있음이 특색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설화 채록의 과정을 구연자·채록자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이를 개관한 뒤, 중요 작품들을 몇 유형별로 선정하여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다시 총괄하여 연변설화의 특징을 추출하는 순서로 본문을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연변지역 설화에 대하여서는 아직껏 선행연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한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지면상 소수 대표작품의 내용을 통하여 자료 전체의 성격을 추단하는 귀납적 방법에 의존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은 연속작업으로 남겨두기로 한다.

## II. 조선족설화 개관

1949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고, 1952년 9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 자치 실시 요강〉에 의하여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구가 창립되었으며, 1956년 새로운 자치조례에 따라 자치주로 개편되는 동안 점차 조선족의 의식이 결집되고 성장되어 갔으며, 연변대학을 중심으로도 여러 차례 민족조사가 이루어졌다. 자치주의 창립을 선포한 지도자는 주덕해인데 그는 조선족설화에 깊은 집념을 가지고 한 세대가 지나 민족설화가 사라지기 전에 수집에 박차를 가하라는 명령을 내려, 더욱 그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동북 삼성의 구연자들을 소집하여 ‘옛말대회’를 열고 표창하는 등 열성을 보였으나 백두산의 〈천수설화〉를 통해 지나치게 민족적 신성성을 부각하였다고 하여 강청 일파에게 이른바 혈통론으로 몰려 실각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밖에 정연길 등도 ‘잡귀신’으로 몰려 애써 모은 설화자료들이 모두 소각되는 소란이 일어난 것도 모두 문화혁명을 전후해서 겪은 참변들이다 (박창묵 증언).<sup>1)</sup>

구연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 인물로는 황구연(용정시 팔도향)노인을 들 수 있다. 그는 자신의 구연만으로도 〈천생배필〉 〈과경노〉 두 권의 설화집을 발표하기에 이르는데, 김재권·박창묵이 정리한 〈과경노〉만해도 82편의 작품이 묶여 있다. 황구연의 설화 구연경력 30년에 이르는데 일주일에 100화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고, 1983년 이후 무려 530화의 기록을 남겼다. 그는 1909년 2월 경기도 양주에서

1) 김선풍, 재중한국인의 구비문학 연구, 민속학회, 제67차 발표 요지, 1991.

출생하여 어려서 한학을 익혔으며 서울농전을 졸업하고 농업기술원으로 있다가 28세(1937)에 중국에 들어가 용정 팔도향·흑룡강성·동경성 등을 전전하며 조선민족에 관심을 가졌고, 해방 후에도 토지를 분배받고 향토일을 하면서 향토전설·민간설화에 관심을 기울인다. 1987년 황구연이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경력에서 보면 그의 설화 가운데는 한국의 작품이 그대로 재생된 것도 있고 중국에서의 새로운 개척적 체험을 담은 것이 있는가하면 동경성 발해 고도에서의 발해민담도 눈에 띈다. 이민 일세대 구연자를 통해 얻은 작품은 거의가 황구연노인의 생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양의 작품이 한국에서의 체험적 작품들이며 그 다음이 조선족 이민에서의 개척과 관련되는 작품들, 그리고 더러는 중국의 작품 또는 한국과 중국 화소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변형 작품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작품을 그대로 이주 구연한 내용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다만 이민사에 있어서 새로운 개척적 작품이거나 양국의 혼합적 성격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문제삼았으며, 그러한 작품들의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특징을 밝히고 의미 부여를 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품들은 거의가 절대세력과 주인공의 투쟁관계를 기본적 틀로 삼고 형성되어 있거나 이미 중국적인 것 가운데 가변적 화소들을 한국적인 형태로 변모시켜 선·악과 강·약자의 대결구도로 바꾸어 선자와 약자의 공격적 의지를 강조하고 그 정신을 미화하거나 순결화하는 방향으로 재창작하고 있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강자와 약자가 19세기 중엽 이후의 이민개척기에는 창조적 권력구조로 나타나, 일제 치하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그것이 불의 또는 강압적 공권력과 피지배적 저항의 구도로 변모되어 나타남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주덕해의 도움에 힘입어 출간된〈조선민간자료집〉1·2의 출간(60년대)만 하더라도 설화를 채록하여 정리한 원칙론을 살펴보면, ① 설화의 줄거리는 개조할 수 없다. ② 인물의 성격은 바꿀 수 없다. ③ 작품의 예술적 품격은 고칠 수 없다. ④ 구술자의 채록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 ⑤ 수집은 전면적으로, 정리는 신중하게 한다.<sup>2)</sup> 등의 지시사상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무렵에는 〈민요집〉〈항일가요집〉까지 묶어 세상에 내놓게 되었으며, 3집은 “중국민간문예연구회 연변분회”의 이름으로 (82년), 4집은 박창묵·김태갑·김재권의 수집으로 수집자명을 밝히고 있다(84년). 수집과정에서도 정도원·조득만·리순기·최지만·박순암·리희련·박준걸노인 등 백여명의 구연자가 동원된 사실이 서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3·4권 도합 214작품은 채록 작품 중 정선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성구연자의 대표적 인물로는 金德順노파를 들 수 있다. 그의 〈金德順故事集〉은 1981년에 구술된 150여화 중 73화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1983년에 출판하고 있는데, 그 역시 한국의 경상도에서 출생하여 동북 삼성에 이주해 살면서 어릴적 들던 설화에서 개척적 민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품을 구연하여 그 명성이 알려지고 있다.<sup>3)</sup> 필자 소장 설화집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길림 민간이야기 〈인삼처녀〉(62년)와 연변 민간이야기 〈천지의 맑은 물〉(62년)이다. 〈인삼처녀〉는 〈樵追姑娘〉

2) 김선풍, 재중한족의 구비문학연구(상계서)

3) 金德順古事集(上海文藝出版社), 1983.

이란 한자제목이 붙어 있는데, <천지의 물>·<인삼처녀>·<백일홍>·<해란강>·<륙형제> 등의 13편, <천지의 맑은 물>은 길운 수집으로, <천수>·<용천골>·<봉선화>·<나비한쌍>·<박지형> 등 14편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역시 길운 정리의 <백일홍>(79년)에 상당 작품이 중복을 보이나, <해란강>·<풍천골>·<봉선화>·<새털 옷> 등 38편이 채록되어 있으며, 김례삼 정리의 옛 이야기 <꿀꿀돼지>·<천도복숭아>·<꽃신 한 짝>·<승전한 옥이> 등 11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서는 많은 민담집이 출간되는데, 박창목 정리의 <사랑산>(82년)은 <할미꽃>·<황금봉>·<금덩이와 형제간>·<사랑산>·<투금진>·<효녀> 등 42편의 민담을 수록하였고, 장동운 정리의 민간서사시 <배뱅이 굿>(82년)은 <배뱅이 굿>·<민요 춘향전>·<초부와 선녀>의 풍자성 짙은 세 작품을 단행본으로 남기고 있다. 조선족 민간 고사는 <연변의 견우직녀>(82년)로 번역 출간되었는데, 문화혁명 이후 흩어진 자료들을 모아 선편한 것으로, 이전에 출간된 주요 자료들과 중복되는 작품들이 많다. 편선작업에는 김태갑이, 번역에는 주로 하명안이 중심이 되었는데, <견우직녀>·<해란강>·<경박호의 유래> <봉선화>·<홍송과 인삼>·<수탉과 여우>·<세쌍둥이별> 등이 기록되어 있어 자료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 <삼태성>(83년)은 김명한 수집의 민담집으로 <중녀>·<삼태성>·<민들레꽃> <서춘보>·<이깔나무와 소나무> 등 30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내용과 부합하는 삽화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뒤이어 나온 것으로 <짜개바지>(84년)와 <불로초>(84년)를 들 수 있다. 이 두 작품집은 각각 상·하 양책으로 출간되었는데, 수집시기·장소, 그리고 구술자와 정리자가 각각 밝혀져 있다. 이미 회귀본이 되어 복사물을 구득하였는데 <짜개바지>는 <짜개바지>·<신유복>·<현명한 재판>·<팔자땀>·<복둥이와 민둥이>·<금붕어아가씨>·<뱀사공처녀>·<팔모여의주> 등 42편을 수록하였다. 한편 <불로초>도 복사본으로, 리용득이 수집 정리하였으며, 특히 그의 <사랑의 노래>·<산양포수>·<해갈삼>은 길림성에서 수상한 작품이며, 동화집 <곰들이네 이야기>(76) <꽃사슴>(83)은 리용득의 민담에 대한 관심을 잘 말해주고 있다. <불로초>는 일명 <장생초>라고도 하는데, <머슴과 부자>·<두형제>·<백년삼>·<복두칠성>·<해갈삼>·<전백록이야기>·<령지>·<칠선녀와 마디풀>·<소쩍새> 등 65편을 수록하고 있다. <바우돌과 현부인>(85년)은 박창목수집의 민담집이다. 그는 60년대 이후 백여 편의 작품을 채록하였는데, 민담집 <사랑산>(82년)을 출판한 바 있으며, 수상작품으로도 <가라지매>·<사랑산>·<할미꽃>·<그림한장>·<형제사이> 등이 있을 정도로 그 명성이 높다. <바우돌과 현부인>에 수록된 작품은 <심산에 피어난 꽃>·<련실전>·<저승길>·<해바라기>·<뽕꽃새>·<김선달과 백두산산신령>·<개나리> 등 43편이 수록되어 있다. <소년부사>(85년)는 김재권 수집 정리의 어린이를 다생으로 한 11편의 작품을 모은 것인데, <암행어사>·<소년부사>·<지주를 골탕먹인 꿀머슴>·<우둔둥이와 영민둥이>·<괴많은 돌이> 등에서 보면, 모두가 침략자들과 투쟁하는 소년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어 외세에 대한 민중적 투쟁을 일깨우는 주제로 되어 있음이 특색이다. <팔선녀>(87년)는 <차병걸 옛이야기집>이란 부제가 붙어 있으며 립승환·한광길·서종식의 정리인데, <구두령과 구룡담>·<백두산 아래 천동네의 유래>·<금상산 숲구이

총각)·〈머슴과 보물〉·〈백두산 신령〉·〈동자삼〉·〈인삼에 깃든 이야기〉·〈살모사와 참새〉·〈토끼꼬리는 왜 짧은가〉 등 117편의 작품을 수록해 놓고 있다. 〈파경노〉(89년)는 김재권·박창목·김태갑의 정리로 되어 있는데, 권두에는 〈보귀한 재부, 비옥한 토양〉이란 서문을 통해 이미 〈천생배필〉(86)의 구연집을 낸 바 있는 황구연노인의 구연자로서의 생평을 중심으로 논술하고 있다. 그는 평생동안 530편의 구연을 한 빼어난 구연자였음을 알 수 있는데, 상당수 중복은 있지만 〈옥섬탄〉·〈파경노〉·〈구렁덩덩신선비〉·〈소년부사〉·〈총명한 녀인〉·〈두선비〉 등 82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고산장군〉(89년)은 정영석의 수집 정리로 이루어졌는데, 정영석은 〈포수와 장재비〉 등 90여편의 민담을 채록한 바 있다. 이 책에는 〈고산장군〉·〈백사슴〉·〈포수와 장재비〉·〈두꺼비의 충고〉·〈부엌돌이〉 등 소년들을 위한 투쟁적 지혜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밖에 〈조선민간전설〉(90)은 윤영·조정현·최용범의 정리로 이루어졌는데, 최상수의 〈한국구비전설지〉의 편집 방법을 따라 내용을 동명전설, 리명전설, 지명전설, 산명전설, 강·못·샘·온천전설, 바위전설, 시혈전설, 석굴전설, 우물전설, 정자전설, 풍물전설, 사찰연기전설, 불상전설, 석탑전설, 고승전설, 수업전설, 효자열녀전설, 시조전설, 기타전설로 세분하고 있으며, 198화의 대부분이 이미 한반도에서 채록된 것의 재판이며 더러는 북한 또는 연변지역의 작품도 삽입하고 있다.

특수지역 설화로는 〈백두산전설〉이 대표적이다. 리천록·최룡관 수집 정리의 본서에는 〈천지〉·〈백두폭포〉·〈금강봉〉·〈관일봉〉·〈와호봉〉·〈선선봉〉·〈백운봉〉·〈왕늪〉·〈관일폭포〉·〈인삼굴〉 등 주로 지물설화가 주류를 이루는데, 민족의 발원지로서의 백두산이 이역땅에서 개척적 삶을 영위하였던 조선족에게 정신적 귀의처가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 작품은 구술자와 수집지점·시간 등이 정확히 밝혀져 있다. 이외에 한문으로 된 작품집으로 〈吉林省民間文學集成〉(상·하) 있는데 여기에 284화가 수록되어 있고, 〈玉女池〉(民間故事集)에 31화가 수록되어, 필자가 검토한 자료만도 모두 25책 1200편에 이른다(중복되는 작품 포함). 구연자도 황구연·차병걸·김덕순을 비롯한 백여 명이 동원되었고, 특히 수집 정리에 열성을 보여준 박창목·김태갑·김재권·길운·김례삼·장동운·김명환 등의 설화 채록을 위한 집념과 업적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언급한 자료를 통하여 조선족자료의 특색을 보여주는 식물설화(꽃)·지명설화·인물설화의 대표적 작품을 그 모티프별로 나열하여 작품의 구체적 의미망을 추적해 보고, 다음으로 일제하의 설화작품을 통해 시대적 상황을 점검한 후, 설화가 유동 내지 창작과정에서 어떻게 공시적 통시적 영향이 이루어지는가의 변이현상을 살펴, 본고의 의도하는 조선족 설화연구의 일 단계를 마무리지으려 한다.

### III. 식물설화(꽃)

중국의 조선족설화 가운데서도 작품의 가치가 돋보이는 것으로 식물설화, 그 가운데서도 진달래·백일홍·민들레·봉산화·할미꽃·도라지·불로초 등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들 수가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역땅에서 끈질기게 살아온 조선족의 정신적 면모를 형상화한 작품임이 공통적이다.

먼저 <진달래>설화의 모티프를 살펴본다.

- ① 옛적 어느 시골에 부모를 여윈 오누이가 살고 있었다.
- ② 폭군이 백성의 궁핍을 기화로 매년 한 처녀를 사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 ③ 오누이집 때문에 화살이 꽃혀, 누이가 그 제물로 선택되었다.
- ④ 오누이는 재앙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달아났다.
- ⑤ 홀연히 바위가 갈라지며 신인이 나타나 백마와 보검을 주고 사라졌다.
- ⑥ 오누이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과 왕성을 역공하였다.
- ⑦ 관병들을 무찌르고 곡간에 쌓아 둔 식량과 보물을 탈취해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
- ⑧ 이번에는 폭군이 오누이집을 역습하여 백마와 보검을 빼앗고 투항할 것을 강요했다.
- ⑨ 오빠는 끝내 항복하지 않고 고향으로 끌려가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된다.
- ⑩ 그후 오빠의 핏자국이 얼룩진 땅에서 자홍빛 꽃이 피어나게 되었다.(진달래)

위의 <진달래>에서 보면 진달래꽃은 곧 '청년용사의 영혼'임을 말하고 있다. 어린 누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오빠는 자신을 오히려 희생의 제물로 바친다. ① - ④는 지하국민담에서 보는 것처럼 오누이의 운명적 패배를 보여주고 있으나, ⑤ - ⑦에서는 신인의 도움으로 다시 승리감을 맛보게 된다. 그러나 ⑧ - ⑨에서는 다시 폭군의 횡포로 억울한 죽임에 이르게 되며, ⑩에 이르러서는 오누이와 폭군의 대결에서 오누이, 특히 누이를 구하고자 하는 오빠의 희생이 영원한 승리를 민중에게 안겨주는 것으로 대단원되고 있다.<sup>4)</sup>

다음으로 조선족 이야기 가운데 <백일홍> 설화를 살펴보기로 하다.

- ① 옛날 어촌의 앞뒷마을에 키잡이 총각과 장 잘 담그는 마음씨 착한 처녀가 살았다.
- ②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 그물을 쳐 고기를 잡으려하자 갑자기 삼두 이무기가 방해했다.
- ③ 키잡이 총각이 이무기의 격퇴를 자원하여 바다로 떠나며, 이별의 신표로 처녀에게 거울을 주었다.
- ④ 거울이 맑고 돛대가 보이면 무사하고, 거울이 흐려지면 잘못된 줄 알라고 하였다.
- ⑤ 거울에 비친 돛대가 갑자기 붉어졌다가는 다시 검게 변하였다.
- ⑥ 처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그 충격으로 죽어 양지쪽에 묻히게 되었다.
- ⑦ 무덤 위에 이름 모를 꽃이 핀 백일만에 키잡이청년이 돌아왔다.

4) 연변의 견우직녀(조선족민간고사), 1955, 훈춘현 채록.



- ⑧ 총각은 돌아와 처녀의 죽음을 비통해 하며 돛대 끝에 피묻은 흔적을 확인하고, 이무기를 죽일 때 뿜은 더러운 피가 돛대에 묻어 거울에 나타났음을 알게 된다.
- ⑨ 청년이 처녀의 무덤에 통곡하자 백날 동안 피었던 꽃이 삼시간에 시들게 된다.
- ⑩ 이듬해부터 해마다 여름이면 그 무덤에 꽃이 피어 백날만에 시들곤 했는데, 어촌여인들은 독사(이무기)의 침해를 방지코자 그 꽃(백일홍)을 장독대 곁에 심게 되었다.

〈백일홍〉설화는 키잡이 총각과 장 달 담그는 처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① - ④는 두 사람의 이별의 애처로움을 말하고 있으며, ⑤ - ⑦은 처녀의 기다림과 죽음을, ⑧ - ⑨는 총각의 회한을, 마지막 ⑩은 백일홍을 장독가에 심는 후일담을 말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는 이별의 신표로 준 거울이 여인의 애틋한 죽음을 가져오게 되며, 이무기의 방해로 죽었으니 장 달 담그는 처녀의 장독가에 백일홍을 심어 독사의 접근을 막아,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전면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이무기는 조선족의 삶을 가로막는 악의 세력(강자)을 상징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sup>5)</sup>

〈민들레꽃〉설화에서 ‘민들레꽃’은 오궁두리마을의 오서방을 사모하던 아내 민들너의 화신이라 한다.

- ① 오궁두리마을에 오서방과 민들너 내외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 ② 그러나 갑자기 외적의 침입을 입어 오서방은 자원하여 의병의 앞장을 섰다.
- ③ 이별하기에 앞서 민들너는 은가락지를, 오서방은 화살을 뿜아 교환하였다.
- ④ 민들너는 길쌈과 양식 조달로 오서방의 의병 활동을 도왔다.
- ⑤ 의병들이 개선해 돌아왔으나 오서방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 ⑥ 민들너는 오서방의 청룡도를 어루만지며 남모르게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다.
- ⑦ 이듬해 봄이 되자 오서방네 집과 오궁두리마을에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 ⑧ 꽃잎은 가위질한 것같고 꽃대는 연통같고 꽃송이는 아름다웠는데, 잊은 민들너의 찢겨진 마음이, 꽃대는 민들너가 연통 위에 올라가 바라던 남편을, 꽃송이는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의 화신이라 하며, 여인의 이름을 따서 민들레라 불렀다.

〈민들레〉에서 보면 ① - ⑥은 외적의 침입으로 민들너가 겪게 되는 고난과 남편을 잃는 비극을 말하고 있으며, ⑦ - ⑧은 민들너가 죽어 민들레꽃으로 화한 내력을 말하여, 일제 치하에 겪은 조선족 가정의 수난의 역사를 의인화하여 보여주고 있다.<sup>6)</sup>

〈봉선화〉는 전승설화〈뱀신랑〉-〈구렁덩덩신선비?〉의 변이 전승담이다.

- ① 은관네 셋째딸이 봉선화 필 때 낳았다하여 ‘봉선화’라 이름지었다.
- ② 명성 높은 가문 은관네집에서 ‘봉선화’가 태어날 때 가난한 행랑아범집에서는 구렁이를 낳았다.

5) 백일홍, 연변인민출판사, 1979.

6) 삼태성(김명한 수집), 1983.

③ 큰딸 둘째딸은 모두 구렁이를 낳았다고 놀려대었으나, 셋째딸은 서선비(구렁이)와 늘 가까이하였다.

④ 혼기가 되어 서선비(구렁이)는 뜻밖에 셋째딸의 청혼을 받게 되었다.

⑤ 초례를 마치자, 서선비는 뱀 허물을 벗어 아내에게 간직하게 하였다.

⑥ 첫째딸과 둘째딸은 시샘이 나서 동생이 간직한 구렁이 껍질을 빼앗아 불태워버렸다.

⑦ 이에 서선비가 달아나버리자 봉선화는 남편을 찾아나서, 농부의 모내기를 해주고 김을 매주며 참새를 꺾어주고, 노파의 빨래를 해준 댓가로 은술잔 하나를 얻어 물에 띄우고 남편을 찾아나섰다.

⑧ 벼랑바위의 문을 열고 별천지에 들어가 봉선화는 아들과 함께 남편을 만난다.

⑨ 봉선화는 서선비의 스승이 낸 수수께끼를 풀어 다시 남편과 재회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룬다.

이 <봉선화>설화의 가난과 부자, 뱀신랑과 봉선화의 대응구조를 통해서 보면, ① - ⑤에서의 행운이, ⑥ - ⑦에서는 다시 고난을 맞게 되며 ⑧ - ⑨를 통하여 다시 행운을 얻게 되는데, 이 작품에서는 '새중에 큰 새 - 먹새' · '꽃중에 귀한 꽃 - 주라꽃'의 수수께끼를 통해 고난의 해결을 하게 되며, "봉선화와 서선비" · "새쫓는 노래" 등의 가사(노래)를 곁들여 부부간의 사랑의 역정을 잘 그려내고 있다.<sup>7)</sup> <할미꽃>은 남편을 잃고 딸들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홀어미의 심정을 효행과 결부하여 잘 형상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① 옛날 어느 고을에 일찍 남편을 여윈 과부가 세 자매를 정성스레 길렀다.

② 첫째와 둘째는 재산을 탐내 부잣집에 시집갔으나 셋째는 가난하나 진실한 농부를 남편으로 택했다.

③ 첫째 · 둘째는 어머니를 데려다 종처럼 부린 후 내쫓아버린다.

④ 셋째딸집을 찾아가다가 어머니는 굶주림과 추위로 지쳐 산고개 마루에서 쓰러져 죽고 만다.

⑤ 며칠 후 셋째의 남편이 나무하러 가다가 장모의 시신을 발견하고 부부가 통곡하고 그곳에 매장한다.

⑥ 해마다 한식철이 되면 할미의 무덤에서 몸이 흰털로 덮이고 구부러진 줄기에 자주빛 꽃이 피어났다.

⑦ 이때부터 이 꽃을 모두 '할미꽃'이라고 명명하였다.

화룡현에서 채록(62년)된 <할미꽃> 설화는 남편을 잃고 홀로 딸자식들에게 갖은 천대를 당하다가 죽은 할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세딸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난과 효도의 상관성을 조선족의 개척정신과 결부하여 보여주고 있다.<sup>8)</sup>

위의 다섯 편의 작품에서 보면 <진달래>는 오누이의 정, <백일홍>은 총각 · 처녀의 사랑, <민들레>는

7) 백일홍(길운 정리), 1979.

8) 연변의 견우직녀(조선족 민간고사)

민들녀와 오서방의 내외, <봉선화>는 역시 봉선화·뱀신랑의 부부애, <할미꽃>은 과부와 딸자식 사이의 효사상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진달래'는 누이를 위해 희생한 오빠의 선혈이 진달래로 화하였고, '백일홍'은 키잡이총각을 바라다 죽은 처녀의 무덤가에 피어났으며, '민들레'는 남편(오서방)을 기다리던 민들녀의 무덤가에 꽃으로 피어났다. '봉선화'는 역시 봉선화꽃의 화신으로 태어나 고난을 극복하고 남편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며, 할미꽃은 남편 잃은 할미가 자식에게 버림받는 수난의 역정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 설화는 모두가 진실한 사랑과 삶의 고난을 주지로 하고 있으며, 폭군·이무기·외적 등의 부정적 강자와의 대결구도를 통해 조선족이 일제하의 폭압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진실과 가난과 사랑의 역정을 헤치고 살아가는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 IV. 지명연기설화

중국 조선족의 지명설화로 대표적 작품을 든다면, <해란강>·<용천골>·<천수>·<경박호> 등을 들 수가 있다.

먼저 <해란강>의 모티프를 살펴보기로 하자.

- ① 용드레촌(용정)에서 서남으로 강을 따라 오르면 우측의 비암산 좌측의 주암산에 이른다.
- ② 비암산 마을에는 란(蘭)이란 처녀가 살고, 주암산 마을에는 해(海)라는 총각이 살았다.
- ③ 두 사람은 같은 일터에 다니는 사이에 정이 깊어지게 되었다.
- ④ 갑자기 번개와 우뢰가 치며 악마가 장도를 들고 나타나 미녀들까지 납치해 갔다.
- ⑤ 두 마을에는 양식이 떨어지고 악마가 물을 흐려놓고 고기마저 잡히지 않았다.
- ⑥ 장사 해(海)가 장검을 들고 나가 악마와 싸워 악마의 목을 쳤으나 그 목은 다시 달라붙었다.
- ⑦ 해가 다시 악마의 목에 올라미를 씌우는 동안 란(蘭)은 치마폭에 매운 재를 날라 떨어진 목에 뿌렸다.
- ⑧ 악마가 죽자 두 마을에는 다시 물이 맑아지고 평화가 오게 되었다.
- ⑨ 용감한 해와 총명한 란은 드디어 혼례식을 거행하여 부부가 되었다.
- ⑩ 그때부터 이 강을 해란강이라 불렀다.

위에서 보면 ① - ③에서는 해와 란의 관계를, ④ - ⑦에서는 악마의 피해와 그를 격퇴한 해와 란의 용기와 지혜를, 그리고 ⑧ - ⑩에서는 악마가 살해된 후 해와 란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강은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는 '해란강'의 연기를 설명하고 있다.

용드레촌(용정)은 조선족이 이주해온 가장 오랜 고장이며, 일로전쟁 후 연변지구에 침투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거점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악마는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의 표현이며, 해(海)와 란(蘭)은 해란강가에 일찍 이주해 살던 조선족의 상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가곡 <선구자>를 통해

보다 널리 알려진 해란강과 일송정, 중국에의 길이 트이면서 민족의 성산 백두산을 드나들면서 한번 짙은 꼭 들르게 되는 용드레촌·해란강은 조선족의 이주사를 설화를 통해서도 잘 전승시켜주고 있다.<sup>9)</sup>

〈용천골〉은 용정 일대의 기름진 땅과 맑은 샘을 중심으로 조선족이 이주해 살던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말해주는 설화이다.

- ① 용정에서 동남쪽 산골길 오십리를 올라가면 깊은 땅 속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의 고장 용천에 이른다.
- ② 어느 봄날 한 초동이 지게를 지고 이곳에 들어와 기름진 들과 맑은 물을 발견하고 평화롭게 피리를 불고 있었다.
- ③ 한 선녀가 이 우물가에 내려왔다가 나무꾼을 발견하고 둘은 곧 부부가 되어 새 가정을 꾸미게 된다.
- ④ 신랑·신부는 그 샘물을 ‘용천’이라 이름짓고 씨 뿌려 농사지으니 그 고을을 용천골이라 하였다.
- ⑤ 그후로는 용천골을 곡골이라 부르니 솟아나는 샘물같이 번창하였다.

용천골 설화는 ① - ⑤에 이르는 단순 모티프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게꾼이 새로운 공간을 찾아낸 것을 통해 찾음을 통해 조선족의 이주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으며, 천사와의 인연맺음을 통해 그들이 이상으로 하던 여성상, 그리고 맑은 샘이 솟고 곡식이 잘 되는 기름진 곡창임을 말하여, 그 샘물가에 터잡고 살아온 역사적 내력을 서정적으로 잘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용정시에는 ‘룡정지명기원지우물’이라 제목하고, “이 우물은 1879년부터 1880년 간에 조선인민 장인식·박인연이 발견하였다. 이민들은 우물가에 용드레를 세웠는데 룡정지명은 여기서부터 나왔다. 1934년 룡정촌의 주민 리기성이 발기하여 우물을 수선하고 약 2미터 높이의 비석 하나를 세웠는데 그 비문을 ‘룡정지명기원지우물’이라고 새겼다.”라고 하였는데, 〈용천골〉설화는 이것의 근원이 된 듯하다.<sup>10)</sup>

〈천수〉는 천지물이 흘러 두만강·압록강·송화강의 흐름을 이루는 원수가 됨을 신비롭게 설화하고 있다.

- ① 동해의 용왕이 고래정승을 불러 맑은 천수의 출처를 알아오도록 명령한다.
- ② 그 물은 백두산의 하늘물이 땅으로 흘러 동해에 흘러든 것임을 알게 된다.
- ③ 하루는 천상선녀들이 옥황의 윤허를 얻어 기린과 청학을 타고 백두산에 하강하여 머리 위에 인 천수(천지)를 보고 놀라와한다.
- ④ 선녀들은 천수를 한 바가지 떠마신 후 동쪽 병풍바위에 던지니 그 물이 땅속으로 잦아들어 동해로 흘러갔다.

9) 인삼처녀, 연변인민출판사, 1962.

백일홍, 연변인민출판사, 1979.

10) 천지의 맑은 물(연변민간이야기) 연변인민출판사, 1962.

- ⑤ 또 북으로 엮지른 물은 달문을 지나 수십 길 벼랑에 떨어져 솔꽃분을 물위에 띄워 동해로 흘러 들었다.
- ⑥ 서쪽 협곡에 던진 물은 산이 가로막아 서쪽을 휘돌아 서해로 향해 흘렀다.
- ⑦ 후세인들은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땅속 삼십리를 도망쳐 흘렀다고 도망강(도문강)이라 하고, 앞을 누비며 서쪽으로 흐른 물은 앞누비강(압록강)이라 하고, 북으로 흐른 솔꽃 덮인 강은 솔꽃강(송화강)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① - ②는 용왕이 천수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③ - ⑥은 선녀들이 천지에 하강하여 물을 떠 마시고 동쪽·서쪽·북쪽으로 내쫓는 과정을 말하고 있으며, ⑦은 도망쳐 흘렀다고 도망강(도문강), 서쪽으로 앞을 누비 흘렀다고 앞누비강(압록강), 북쪽으로 솔꽃이 떠서 흘렀다고 솔꽃강(송화강)이 되었다는 신화적 서술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각각 천지에서 발원하는 압록강·도문강·송화강의 줄기가 선녀의 쪽박물에서 연유하였으며, 동해 용왕도 고래정승으로 하여금 천수의 실체를 조사케 할 정도로 신비화되고 있다.<sup>11)</sup>

백두산전설에서 <천지>설화는 다음의 모티프로 구성되어 있다.

- ① 평화로운 마을에 흑룡이 나타나 물굽을 지저 백성을 괴롭힌다.
- ② 백장수가 물줄기를 찾았지만 흑룡이 방해하여 찾지 못한다.
- ③ 아리따운 공주가 나타나 백장수를 도와준다.
- ④ 백장수가 고생 끝에 옥장천을 찾아 그 물을 석달 열흘을 마신다.
- ⑤ 힘을 얻은 백장수가 흑룡에게 도전한다.
- ⑥ 공주의 도움으로 백장수가 흑룡을 격퇴한다.
- ⑦ 백장수가 땅을 파자 물이 솟아 천지가 된다.
- ⑧ 백장수가 16삽을 파낸 흙이 백두의 16봉이 된다.
- ⑨ 백장수는 공주를 맞아 천지 아래에 수정궁을 짓고 살게 된다.

여기에서 보면 ① - ②에서 흑룡의 방해를 받는 백장수를, ③ - ④에서는 공주가 도움을 주어 힘을 얻게 되며, ⑤ - ⑦에서는 결국 흑룡을 패퇴시키고 천지의 물을 얻게 되며, ⑧에서는 파낸 흙으로 16봉을 형성케 하고, ⑨에서는 수정궁 영조를 통해 신성화에 성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리천록·최룡관이 수집한 <백두산전설>에는 35화 가운데 백두폭포·칠성봉·금강봉·관일봉·와호봉·옥설봉·신성봉·백은봉을 비롯하여 소천지·선녀폭포·관일폭포·인삼굴 등 태반이 지명유래담으로 되어 있어 백두산의 신비성을 설화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sup>12)</sup>

<경박호>설화는 발해국 마지막 임금인 애왕이 던져버린 거울을 찾는 유민 어부의 정성어린 노력을

11) 천지의 맑은 물(상동)

12) 백두산전설(조정현·최용범), 조선민족사, 1990.

통하여 이주민의 저항과 애환을 잘 보여주고 있다.

- ① 발해 왕궁에는 금으로 만든 보배거울이 있었다.
- ② 애왕이 거울을 가지고 서경으로 거란군을 피해 달아나다 경박호에 빠져 죽고 만다.
- ③ 그후 이 호안에 한 선량한 어부 내외가 살았는데, 유아(柳芽)라는 딸을 낳았다.
- ④ 어부의 아내는 그후 병이 들어 죽으면서 호수 속의 거울을 건지면 그것을 비취 자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유언을 남겼다.
- ⑤ 거울은 머리 셋 눈 여섯 달린 괴물이 되어 배를 뒤집는 등 심술을 부렸으므로 어부는 그 거울을 찾기로 맹세한다.
- ⑥ 그후 한 용감한 젊은 어부를 골라 유아의 남편을 삼고 세 사람이 협력하여 거울을 찾으려 괴물과 대결한다.
- ⑦ 신고끝에 괴물을 살해하고 거울을 찾았으나 웅서어부는 파도에 휩쓸려 그만 죽게 된다.
- ⑧ 뒤이어 유아도 죽음을 택하고 끝내 거울을 건지지 못하고, 지금도 물아래 떠돌아 다니므로 경박호(鏡泊湖)라 하였다 한다.

여기에서 ① - ②는 애왕의 죽음으로 거울을 빠뜨리게 된 내력을 말하고, ③ - ⑥에서는 아내를 볼 수 있는 거울을 찾기 위한 집념이 주축을 이루며, ⑦ - ⑧을 통해서는 결국 온 가족의 목숨을 버리고도 찾지 못한 거울에의 원망과 저주를 나타내고 있다. 거울은 괴물이라고 했다. 괴물을 아내를 만나는 기쁨과 환상으로 좇다가 자신마저 목숨을 버린다. 이 작품에는 발해 애왕의 죽음과 어부의 거울찾기를 통해 발해고토에 뿌리내린 이민의 강한 역사의식이 깃들어 있다. 괴물인 거울은 도전을 유도하지만 결국은 좌절감에 빠지고 만다(김원기 구술).<sup>13)</sup>

이상에서 몇 편의 지명설화를 살펴 보았다. 해란강 설화의 악마는 해와 란의 용력으로 살해되고 다시 평화가 찾아 왔다. 용천골 설화에 나오는 나무꾼 총각이 천사를 아내로 맞는 순진함과 풍요의 역사에서는 조선족 개척사의 한 단면을 볼수 있다. 천수설화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의 천지물이 발원이 되는 압록강·도문강·송화강의 신화적 발원을 천상의 선녀와 결부시켜 더욱 신성화시키고 있다. 천지설화에서 백장수가 공주의 도움으로 흑룡을 물리치고 물을 솟게 하고 16봉을 만든 것도 역시 신화적 발상에 연유한다. 경박호설화에서 환상의 괴물(거울)을 좇다가 파멸하는 어부의 생애는 조선족 이민사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들 작품에 공통되는 악과 선의 대결구도는 설화를 낳은 조선민족의 투쟁의 역사이며 생활의 투영이기도 하다.

13) 연변의 견우직녀(조선족민간고사), 연변민간문학연구회, 1982.

## V. 본격담(인간관계)

다음으로는 식물설화·지명설화 외에 본격담 가운데 몇 편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본격담은 다시 현실담과 공상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현실담 가운데 개척이민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은혜〉라는 작품은 조선족이 일찍이 살길을 찾아 간도지역으로 이주할 무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① 함북 명천땅에 가난하게 사는 김씨 성을 가진 한 가정이 있었다.
- ② 병으로 아들마저 잃게 되자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살길을 찾아 간도로 떠났다.
- ③ 가산을 팔아 돈 백원을 만들어 이를 허리춤에 차고 종성고개를 넘다가 쉬는 사이에 돈보따리를 두고 떠난다.
- ④ 도중 주막집에서 돈을 잃고 통곡하자 한 노인이 찾아와 돈을 주었다며 되돌려 준다.
- ⑤ 이튿날 종성 나루터를 건너다 배가 뒤집혀 한 청년이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이른다.
- ⑥ 며느리가 되찾은 돈 백원을 걸고 청년을 구출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주겠다고 한다.
- ⑦ 이렇게 구출된 청년은 마도강으로 살길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었는데, 며느리와 김노인도 그곳으로 함께 따라간다.
- ⑧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의식을 제공해주어 주며 함께 산다.
- ⑨ 며칠 후 청년의 아버지가 조선에 갔다 돌아와 김노인과 결의형제를 맺는다.
- ⑩ 며느리가 청년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보니, 종성서 시아버지의 돈을 주워주던 사람이어서, 드디어 온마음이 모두 화목하게 살게 된다.

이 작품은 당시 간도 이민의 협력과 화목을 상징하는 설화작품으로 예술성은 없으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여실히 부각시켜 주고 있다. ① - ③은 당시 일제하에 이민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던 절박한 시대상황을, ④는 조력자의 관계를 말하고 있으며, ⑤ - ⑦은 돈으로 물에 빠진 청년을 구출하는 대목을 통하여 이주민

의 정착과 관련된 인연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⑧ - ⑩은 새로운 이주의 땅 마도강의 인연과 그들의 상호협력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른 김노인에게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던 사람이 그 돈으로 며느리가 강물에서 구출해준 청년의 아버지로 되어 있어, 이러한 이야기가 이주민의 고난 속에 이러한 민담은 큰 희망과 보람을 안겨준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다.<sup>14)</sup>

〈갈지 않은 두 사람〉은 가난하고 마음씨 착한 원필과 부자이면서 마음씨 사나운 은필의 대조적인 성격을 통하여 백두산 인삼이 그 심판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본격담이다.

- ① 옛적 백두산 줄기의 어느 산촌에 가난한 원필과 부자인 은필이 한 마을에 살았다.

14) 삼태성, 연변인민출판사, 1983.

- ② 하루는 원필이 은필에게 권유하여 삼백리길을 사흘 걸려 백두산에 인삼을 캐러 떠났다.
- ③ 사흘을 헤매다 인삼밭을 발견하였으나 절벽을 내려갈 수 없어 피나무껍질로 바(줄)를 만들어 타고 원필이 먼저 내려갔다.
- ④ 원필이 인삼을 캐어 매어달아 올렸으나 은필은 욕심이 나 인삼을 독차지 할 생각으로 이번에는 바를 내려주지 않았다.
- ⑤ 원필은 은필을 원망하며 바위벼랑을 기어 오르다가 그만 떨어져 피투성이가 된다.
- ⑥ 깨어보니 백발노인이 원필을 구출해주고 천년묵은 산삼 한뿌리를 주며 함정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 ⑦ 꿈에서 깨어난 원필은 산삼을 가지고 꽃사슴을 타고 함정을 벗어났다.
- ⑧ 은필은 돌아와서 원필이 욕심이 나서 아직도 인삼을 캐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이고, 혼자 인삼을 너무 많이 먹어 그 독으로 죽고 만다.
- ⑨ 은필이 죽은 후 원필이 돌아온다.
- ⑩ 그후 천도국 임금의 병이 들어 산삼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여 박물관이 원필을 찾아온다.
- ⑪ 원필이 백발노인이 주던 산삼을 박물관에게 건네주자 그는 사양함에도 불구하고 천냥금으로 보상한다.
- ⑫ 천도국 왕이 산삼으로 병을 고치게 되자 후한 예물을 내려 원필과 가난한 마을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되고 원필도 장가들어 행복하게 살게 된다.

이 작품에서 보면 ① - ⑨까지는 지하국대적제치민담의 기본골격을 지니고 있다. ① - ③에서는 원필과 은필의 대결구도를 통하여 인삼을 캐기까지의 내용이며, ④ - ⑦까지는 원필이 고난과정을 통하여 백발노인에게서 산삼을 선물로 받고 꽃사슴을 통하여 구출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 ⑧ - ⑨는 다시 원필의 패배과정이며, ⑩ - ⑫는 다시 원필의 고난이 극복되고 천도국왕의 병을 산삼으로 치유한 보상으로 자신뿐 아니라 한 마을이 모두 잘살게 되었다는 선종담이다. 이 작품은 지하국탐색에서 천도국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보면 공상담이 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원필과 은필의 선악의 대결구도가 백두산 인삼노인(천도국 박물관)의 심판으로 선(원필)의 승리에 이르는 선종으로 귀결되는데, 지역적 배경을 백두산으로, 선종의 전환매물을 인삼으로 하는 것을 보면, 이 작품이 간도지역의 이주민사회를 배경으로 전승되어 온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sup>15)</sup> 인삼을 매개로 한 많은 작품 중 <백년삼>은 효도 설화로 전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옛적 한 두메 마을에 시부모를 공경하는 며느리가 살고 있었다.
- ② 시아버지가 병이 들어 음식을 데우기 위해 화롯불을 늘 꺼뜨리지 않았는데, 중참을 데우던 중 갑자기 불이 꺼졌다.

15) 삼태성, 연변인민출판사, 1983.



- ③ 머느리가 불을 꺼뜨리는 정체를 추적하다가 떠꺼머리 총각의 소행임을 확인한다.
- ④ 아침에 물을 길러 나갔다가 돌담너머 도망하는 총각을 발견하고 비너를 뽑아들고 추적한다.
- ⑤ 고개를 넘다가 총각이 넘어지자 비너를 빼어 총각에게 해를 가한다.
- ⑥ 머느리가 자신의 과격한 행위를 뉘우치자 총각은 다시 일어나 달아나므로 또 추적해간다.
- ⑦ 벼랑 앞에서 총각이 유혹하므로 벼랑을 오르니 홀연 무릉도원이 전개되고 한 꽃밭에 이르게 된다.
- ⑧ 꽃화판 가운데 비너가 꽃혀있어 그 꽃을 뽑으니 인체형의 탐스럽고 향기로운 인삼이 되어 뽑혀진다.
- ⑨ 돌아와 보니 그 식물은 백년 묵은 산삼으로, 이를 달여 병든 시아버지를 구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이 작품에서 보면, 머느리(새색시)를 유혹하는 총각의 환상을 좇아가서 결국 산삼을 캐게 되고 그 영약이 매개가 되어 불행했던 가정을 행복으로 전이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본다. ① - ③에서는 불씨를 꺼뜨리는 범인이 떠꺼머리총각임을 확인하게 되며, ④ - ⑦에서는 물길기·고개넘기·벼랑·꽃밭 등의 환상적 추적과정을 통해 산삼의 정체를 발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⑨는 결국 효심이 원인이 되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sup>16)</sup>

〈륙형제〉설화는 조선족 이주민의 농경생활과 관계되는 작품으로 이주민의 생활사를 잘 반영해 보여주고 있다.

- ① 옛적 한곳에 지혜가 빼어난 규수가 있어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총각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한다.
- ② 농사철이 되어 한 총각이 식전에 모 열마지기를 심을 수 있다고 하여 청혼했다가 삿갓 밑 벼 열포기를 못김어 퇴짜를 맞는다.
- ③ 또 한 총각이 식전에 벼 열마지기를 심을 수 있다고 했다가 벼포기 하나가 물에 뜨는 바람에 거절당하고 만다.
- ④ 그후 처녀가 스스로 배필을 찾아 나섰다가 어느 벼랑길에서 우연히 첫번째와 두번째 구혼하던 모심던 총각을 함께 만난다.
- ⑤ 그들은 처녀에게 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깊은 낭떠러지에 그녀를 밀어 떨어뜨리고 만다.
- ⑥ 낭떠러지 아래는 대장간이 있어 대장장이 총각이 버뜨던 낫을 가지고 급히 백두산에 달려가 싸리를 베어와 광주리를 만들어 여인을 받아 구출한다.
- ⑦ 이들 부부는 여섯 형제의 아들을 낳아 첫째는 “천문지덕” 둘째는 “딸각열쇠” 셋째는 “베도 돈음이니” 네째는 “더위도 차가우니” 다섯째는 “깊어도 얕으니” 여섯째는 “무거워도 가벼우니”라 이

16) 불로초, 료녕인민출판사, 1984.  
짜개바지, 료녕인민출판사, 1984.

름지었다.

- ⑧ 육 형제가 장성하여 그 고을의 원님이 바뀌어 대장장이를 불러 재물을 요구하였다.
- ⑨ 아들들이 돈을 바쳤으나 적다고 아버지를 구속하므로, 피를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 ⑩ “천문지덕”이 막내를 시켜 둘째 “딸각열쇠”를 엮고가서 옥문을 열고 아버지를 구출해 온다.
- ⑪ 그후 옥졸들이 달려와 아버지를 다시 가두었으나 이날 저녁 다시 “딸각열쇠”가 문을 열고 아버지를 구출한 후 셋째를 아버지 대신 가두어 놓는다.
- ⑫ 이튿날 사또의 명으로 아들 “베도 돌음이니”의 목을 치니 목을 베어도 계속 돌아났다.
- ⑬ 저녁에 셋째를 네째로 바꾸어 놓으니 이튿날 사또는 범인을 도가니에 넣고 풀무질하였으나 도가니가 점점 차가와져 “더위도 차가우니”는 죽지 않았다.
- ⑭ 이번에는 다섯째로 바꾸었더니 사또가 범인을 강물에 처넣었으나 “깊어도 얕으니”는 죽지 않았다.
- ⑮ 그러자 사또가 온 식구들을 큰 바위로 눌러 죽이려 했으나 여섯째 “무거워도 가벼우니”가 바위를 옮겨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 ⑯ 사또는 결국 육 형제의 재주에 패배하여 대장장이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못된 버릇을 고치게 되었다.

위의 <육형제>는 <के은 자의 새끼 서 발>처럼 일종의 연쇄담으로 여인의 지혜가 대장장이를 남편으로 맞게 되며, 두사람이 낳은 육형제의 아들들이 원님의 버릇을 고치고 고난을 극복하게 된다. 여기서 특히 비랑에 떨어지는 여인을 낫을 버르던 대장장이가 백두산으로 가 싸리나무를 베어와 광주리를 만들어 받아서 아내를 삼는다는 대목은 소화의 성격을 지녔으면서도, 슬기있는 부부가 많은 아들을 낳아 노동력을 자산으로 삶을 영위하면서 백두산을 정신적인 모태로 삼아 전승적 민담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① - ④에서는 처녀의 남편맛이 실패담을 말하고 있으며, ④ - ⑦을 통해서는 대장장이 남편과의 만남과 생활을, ⑧ - ⑮의 과정에서는 옥을 열고, 목을 치고, 불에 달구고, 강물에 빠뜨리고, 바위로 누르고 해도 당하지 못하였다는 시련의 과정을, ⑯은 다시 사또의 징치와 가정의 행복을 되찾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sup>17)</sup> 이러한 형제간의 우의는 <두형제> 가운데서도 보이는데, 효성스런 형과 절름발이 명의인 아우의 관계를 통하여 백년 묵은 호랑이를 함께 잡아 그 피를 어머니에게 바쳐 목숨을 구하는 사실을 통하여, 같은 핏줄을 나눈 형제가 부모를 위하는 마음은 외면적인 언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17) 백일홍, 연변인민출판사, 1979.

## VI. 항일설화

청말의 위세에 대한 저항설화는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일제 강점기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포악한 제국주의에 항거하고 사회주의적 이상을 동경하는 내용의 작품으로 형상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항일설화 <해갈삼>을 들어보기로 하자.

- ① 일제가 집단부락을 만들자 항일유격대는 음식과 약을 구할 수 없어 두 대원에게 산삼을 캐오라고 한다.
- ② 아무리 헤매어도 그들 눈에는 산삼이 보이지 아니하여 실망하게 된다.
- ③ 닷새되던 마지막날 홀연 장백산에서 “홍의삼” “청의삼”의 두 동자를 만나게 된다.
- ④ 그 소년들은 천년송 두 그루가 선 청석바위 밑 샘물터가 자신들의 고향이라 일러 유인하고는 사라져버린다.
- ⑤ 꿈에 두 동자가 지시하던 곳을 찾아가 산삼 두 포기를 얻는다.
- ⑥ 산삼을 물통 속에 넣었더니 산삼물이 되어, 유격대원들이 아무리 마셔도 마르지 아니하였다.
- ⑦ 산삼물로 병을 고치고 힘을 얻어 왜놈들을 모두 격파하고 승리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보면 ① - ②에서는 왜군과 유격대의 대결에서 유격대의 고난을, ③ - ⑤는 꿈에 “홍의삼” “청의삼” 동자를 만나 산삼을 얻게 되는 과정을, ⑥ - ⑦은 마르지 않는 산삼물을 통해 왜군을 격파하고 유격대가 승리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 <불로초>설화가 효도와 관련된 것과 견주어 보면, 이 작품은 일제 점령기의 역사적 배경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설화의 환경적 변화인자와 유동성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sup>18)</sup>

<씨름판에서 있는 일>은 일제하의 항일운동과 공산주의 활동을 함께 다루고 있다.

- ① 단오날 화룡현 두도구에서 씨름판이 벌어진다.
- ② 일본수비대를 업은 국자가라는 부자가 씨름꾼 ‘은진미륵’을 사서 황소를 다 따가겠다고 한다.
- ③ 평강벌 갑부도 산중대왕 ‘비호’라는 씨름꾼을 사서 국자가 편과 맞서겠다고 한다.
- ④ 씨름날이 되자 홀연 한 청년이 나타나 ‘비호’와 겨루어 크게 이긴다.
- ⑤ 다음으로 청년이 ‘은진미륵’을 이기자 삼판이승을 오판삼승제로 바꾸고 왜경들을 동원한다.
- ⑥ 청년이 ‘은진미륵’과 다시 싸워 이기자, 국자가가 난동을 부린다.
- ⑦ 구경꾼 중 항일유격대원이 나타나 군중의 도움으로 국자가와 왜경을 무장해제하고 돌아간다.

여기서 ① - ③은 ‘은진미륵’과 ‘비호’를 통해 일제의 위세를, ④ - ⑤를 통해 두 세력에 대한 대항의식을, ⑥ - ⑦을 통해서도 유격대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수비대를 업은 부호 ‘국자가’와

18) 불로초(상), 료녕인민출판사, 1984.

‘평강갑부’ 두 세력의 다툼과 유격대와의 갈등은 당시의 현실적 상황을 잘 반영해 준다.<sup>19)</sup>

〈박지형〉이라는 이야기에서도 앞서 든 씨름판을 휩쓴 청년처럼 박지형이란 인물을 통해 고난 가운데 구원자의 형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 ① 혼춘땅에 ‘박지형’이란 젊은이가 있었다.
- ② 왜놈들이 밀려오자 박지형은 무기를 들고 화룡봉으로 올라간다.
- ③ 왜놈들이 박지형을 갖은 방법으로 잡으려하나 끝내 잡지 못한다.
- ④ 어찌다 사소한 실수로 박지형이 체포된다.
- ⑤ 감방에서 간수를 죽이고 죄수들을 석방하고 장교들은 무장해제시켜 총을 메고 사라진다.
- ⑥ 그후 박지형은 다시 양민을 끌고 가던 왜놈을 살해하고 그 사람을 구출한다.
- ⑦ 박지형은 항일유격대라는 그 사람과 함께 유격대에 참가한다.

여기서 ① - ④는 박지형의 고난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⑤ - ⑥은 그의 영웅적 활약상을, ⑦은 그가 자신이 구출해 준 사람과 함께 항일유격대에 동참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여기 혼춘지역은 두만강과 접경한 일제하 독립운동의 요람이 되는 땅이며, 이러한 지역적 배경의 항일실화는 백여 편이나 채록되고 있다.<sup>20)</sup>

〈정찰반장 김봉숙〉은 항쟁에 가담한 남성이 아닌 여성영웅의 투쟁상을 보여준다.

- ① 항일무장투쟁이 격화되자 위만 경비사령이 심양에 증원군을 요청한다.
- ② 김봉숙이 친정가는 한족 새각시로 가장하고 정찰을 떠난다.
- ③ 한 오두막집에서는 경찰서장이 딸(옥란)을 첩으로 데려가겠다 하여, 자결하려는 가족들의 사연을 듣는다.
- ④ 옥란은 봉숙을 너무 닮아, 옥란이 대신 봉숙이 분장하여 신부가 되어 떠나면서 젊은이들을 몇 명 함께 데려간다.
- ⑤ 술에 만취케 한 후 보초와 하객들을 모두 무장해제시킨다.
- ⑥ 봉숙은 포로와 무기를 가지고 옥란 가족과 함께 산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여기서 보면 강제로 양민의 딸을 첩으로 데려가는 일제의 잔인상이 보이는데, ① - ③은 봉숙의 정탐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④ - ⑤에서는 옥란 대신 봉숙이 신부로 분장하여 혼인식장에 가서 술을 먹이고 왜놈을 무장해제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지막 ⑥에서는 옥란의 가족들도 유격대에 함께 동참시키는 저항의 면모를 살펴 볼 수 있다.<sup>21)</sup>

〈별천지〉에서도 옥란이를 따라 유격대원이 되는 박노인의 항일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19) 백일홍, 연변인민출판사, 1979.

20) 백일홍, 연변인민출판사, 1979.

21) 백일홍(위책)

- ① 만주국시절 늙은 박노인이 까치봉에서 한 지주의 양치기를 하며 가난을 한탄한다.
- ②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도술로 꽃을 피워 박노인을 위로하였다.
- ③ 선녀가 점차 옥란이로 변모해 사라지자 박노인은 놀라 깨어 꿈을 확인한다.
- ④ 갑자기 총소리가 나 밖을 내다보니 옥란이 총에 맞아 박노인마당에 쓰러져 있었다.
- ⑤ 박노인은 옥란을 옷के에 숨기고, 닭피를 뿌려 왜군을 따돌린다.
- ⑥ 왜군이 다시 오자 옥란을 술에 넣고 불을 지피 왜군으로부터 구출한다.
- ⑦ 박노인도 나중에 옥란을 따라 유격대원이 된다.

여기서 ① - ②는 박노인과 그를 위로하는 선녀의 협력구도를 볼 수 있으며, ③은 선녀의 옥란화과정 등을 통해 이를 '천상-지상-저항'의 구도로 설정하고 있다. ④ - ⑥에서는 중복된 선녀(옥란)의 고난과정을 통해 당시의 억압된 참담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⑦은 구출된 옥란을 따라 박노인도 함께 유격대에 동참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sup>22)</sup>

한편 <올가미전투>도 보안군과 유격대의 대립관계를 통해 일제 치하의 조선족이 겪었던 시대적 고난상을 잘 입증하고 있다.

- ① 연길현 호청개에 위만군 보안관이 주둔하여 피탈이 심하였다.
- ② 어느날 두 명의 사내가 보안관을 찾아가 장관을 찾는다.
- ③ 장관에게 잃어버린 소를 찾아달라 하니 그는 공산 이적의 소행이라며 거절한다.
- ④ 그날 밤 그 청년들은 보안단을 기습하여 무장해체하고, 탄약과 군수품을 빼앗아 달아난다.
- ⑤ 추격대가 뒤따랐으나 끝내 놓쳐버린다.
- ⑥ 그뒤 농민들은 유격대가 축지법을 썼다며 통쾌해한다.

여기서 보면 ① - ③에서 보안군과 유격군 사이의 심한 갈등관계가 엿보인다. 생산수단인 소까지 붙잡아가서 도살하고 그 책임은 농민들에게 돌린다. ④ - ⑤에서는 유격군의 공격과 전과를 말하고 있으며, ⑥의 농민들의 유격군 칭찬을 통해 보안군에서의 적대감을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유격군은 공산 이적이라 하여 당시 간도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공산주의와 제국주의의 대결구도로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작품은 모두가 1930년대 전후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채록도 그 무렵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sup>23)</sup>

<엄니의 마음>은 장백산을 배경으로 한 가난한 농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집에는 공산당원(청년)들이 자주 들러 쉬었다 가곤 하는데, 이 사실을 눈치채고 일본군이 찾아와 그집의 무남독녀들 데려가려 하자 어머니가 그 집에 들른 청년을 사위로 가장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는 내용의 지혜담이다.

서두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청말의 지배계층에 대한 저항과 거부감이, 일본이라는 새로운 침략자로

22) 백일홍(위책)

23) 백일홍, 연변인민출판사, 1979.

대체된 후로는 왜적과의 대결구도에서 설화작품들이 옷을 갈아입고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주로 이러한 작품들은 연길·훈춘·돈화·장백산 지역에서 많이 채록되고 있다. <소년부사>의 어두항의 지혜담(소년부사)이나, 백성들의 추앙이 그치지 않았다는 <고산장군>처럼 개척적 영웅담이 이 지역에는 두드러지게 많은데, 가난한 공산주의와 제국주의의 대립된 갈등 가운데서 투쟁의 승리를 획득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이 부류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예술성을 많이 거세당하고, 지나치게 이데올로기화하고 있는 결함이 지적되기도 한다.

## VII. 설화의 변이양상

설화는 지역간의 이동에 따라서 그것이 지역성의 영향을 받아 변이현상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이는 마치 소설의 변이현상과도 유사하다. 중국조선족설화의 절반 이상은 조선반도에서 이주해온 화자에 의해 창조되고 구술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설화가 특정지역에서 2세·3세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 지역의 역사나 풍토에 적응하여 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설화의 속성으로 볼 때 이러한 사실은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다. 그 대표적 작품을 들어 변이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암석설화 가운데 <홍송과 인삼>설화가 있다.

- ① 어느 산골에 부모를 잃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노총각(홍송)이 있었다.
- ② 홍송이 나무하러 갔다가 손가락을 베었으나 부모가 소중히 하던 청실홍실로 동여매어 낫게 된다.
- ③ 다음날은 붉은 꽃을 피운 산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산삼은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하여 있었다.
- ④ 홍송은 산삼을 캐어다 창고에 소중히 보관하여 둔다.
- ⑤ 아침마다 집안을 청소하고 밥을 지어 두므로 몰래 엿보다가 삼녀(蓼女)를 붙잡는다.
- ⑥ 이웃에 사는 양반이 삼녀를 탐내어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 한다.
- ⑦ 홍송과 삼녀는 백두산으로 양반의 추격을 피해 피신하였다.
- ⑧ 삼녀가 입김을 불자 양반 추격자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홍송은 소나무로 삼녀는 다시 산삼으로 변하였다.
- ⑨ 백두산에 홍송과 산삼이 많은 것은 홍송과 삼녀의 자손들이 변창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홍송과 인삼>은 우리 민담의 나중미부(螺中美婦)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달팽이 아가씨>·<우렁이씨>·<조개씨> 등의 명칭으로도 불리우는 이 설화는 일본의 <蛤女房>, 중국의 <田螺精> 등 세계적 분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본 작품에서 보면 일반형에서 볼 수 있는 타부를 어기는 비극적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변모되어 있으며, 산삼이 청실홍실과 결부되어 여인으로 변모되고, 못된 양반과의 갈등과정을 겪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들은 백두산으로 달아나 끝내는 양반을 죽게 하고 다시 남자는 홍송 여자는 산삼으로 되돌아가게 하였으며, 후일담으로 오늘날 백두산에 홍송과 산삼이 많은 사실과

결부하고 있다. ① - ②는 홍송의 효심에 결부되어 있으며, ③ - ⑤는 삼녀의 서술이고, ⑥ - ⑦은 홍송과 삼녀의 고난, ⑧ - ⑨는 행복과 후일담으로 조직되어 있다. (김부녀 구술)<sup>24)</sup>

연변지역 설화에는 인삼과 관련되는 작품이 많다. <인삼처녀>의 경우도 그 대표적 작품이다. 무송현을 전자가(甸子街)라 부르던 옛적 유별공들이 뗏목을 무어 송화강을 따라 선창(길림)으로 유송하던 시절의 전승담이다.

- ① 송화강가에는 한 벼랑바위가 있어 강물에는 벼랑의 인삼 한포기가 항상 아름다운 처녀로 나타나 비치었다.
- ② 뗏군들은 그 그림자를 인삼처녀라고 불렀다.
- ③ 전자가의 부호 동패강이 이 사실을 알고 뗏목군들에게 현상을 걸어 인삼처녀를 잡아오게 하였다.
- ④ 선량한 유별공 수생이 자원하여 벼랑바위에 오르자 인삼은 아름다운 처녀로 화하였다.
- ⑤ 수생과 처녀가 다정스레 벼랑을 내려오자 동패강은 그들을 덮쳤다.
- ⑥ 그러나 부호에게 잡히지 않고 수생과 처녀는 다시 벼랑 위로 올라갔다.
- ⑦ 뒤쫓아 오르던 부호는 실족하여 강물에 빠져죽고 만다.
- ⑧ 그후로는 벼랑 위에 처녀와 수생이 함께 나타났는데, 이 근처에 인삼이 많은 것은 인삼처녀와 수생이 가난한 뗏군들을 위해 자손을 많이 낳았기 때문이라 한다.

이 작품은 매우 문학적으로 수식되어 있다. 역시 가난한 뗏군 수생과 인삼처녀는 악인 동패강과 대립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① - ②는 인삼처녀의 환상을, ③ - ⑤는 동패강의 횡포를, ⑥ - ⑦은 수생과 처녀의 승리를 서술하고 있으며, ⑧은 그들의 후일담과 결부되어 있다. 인삼은 고래로 신성식품으로 선량한 인간이나 예언자로 자주 의인화되는 모습을 민담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다.<sup>25)</sup>

<나비한쌍>설화는 전술한 <나중미부설화>에다 <양산백설화>가 복합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① 가난한 노총각이 한여름 논두렁에 지게를 벗어놓고 장가못 간 신세타령을 한다.
- ② 논가운데 큰 골뱅이가 사람의 말을 하므로 주어다 물독에 넣어두고 일하러 나간다.
- ③ 총각이 집을 비울 때마다 밥도 지어 놓고 청소도 하므로 정주에 숨어 동정을 살핀다.
- ④ 물독 안의 골뱅이에서 처녀가 나타나 일을 해놓고 다시 들어가는 광경을 목격한다.
- ⑤ 그 처녀를 잡아 아내를 삼자, 아내는 신포로 진주를 간직하게 한다.
- ⑥ 아내가 점심을 이고 남편에게 가다가 사또행차를 만나 사또에게 잡혀가게 된다.
- ⑦ 아내를 기다리던 남편은 사또를 찾아갔다가 붙잡혀 매를 맞아 죽게 된다.
- ⑧ 죽은 영혼이 설중새로 재생하여 다시 아내에게 날아가 진주알을 떨어뜨려 남편임을 확인시킨다.

24) 연변의 견우직녀, 연변민간문학연구회, 1982.

25) 인삼처녀(길림민간이야기), 1962.

⑨ 아내는 사또에게 청하여 남편의 혼백임을 말하고 뒷동산에 묻어줄 것을 당부한다.

⑩ 삼우제를 지내는 아내에게 설중새가 날아와 무덤을 가르고 함께 들어간다.

⑪ 사또는 충격으로 죽고, 무덤가에는 나비 한쌍이 부부의 영혼인 양 날아다녔다.

〈나비 한 쌍〉은 앞의 모티프에 의하면 ① - ④에서는 골뱅이 속에서 나타나는 색시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의 서술이며, ⑤ - ⑦에서는 사또를 만나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과정을, ⑧ - ⑩은 다시 설중새와 여인의 결합과정, 그리고 ⑪에서는 다시 사또가 죽고 나비로 화한 부부의 영혼을 형상화하고 있다. 앞서 인삼이 처녀로 화한 것처럼 골뱅이가 처녀로 화한 나중미부형설화에다, 홀연 무덤이 갈라지며 설중새가 각시를 데리고 들어가다 다시 무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양산백과 축영대〉 결합이 이루어져 애정설화의 극치를 이루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sup>26)</sup>

〈각시바위〉설화는 〈장자못전승〉의 지역적 변형이라 하겠다.

① 지척소(연길)의 부호 이정승집에 중이 동냥을 얻으러 간다.

② 이정승은 중에게 말뚝을 담아주어 학대한다.

③ 이를 본 젊은 여인(천미향)이 몰래 쌀을 퍼서 중에게 바꾸어준다.

④ 천미향은 원래 단란한 가정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낭군이 원정나간 사이에 탐욕심을 품은 이정승의 첩이 되었다.

⑤ 미향은 꿈에 어머니를 만나 칠성이와 귀한 부부가 되는 꿈을 꾸고 이정승의 첩이 된 사연을 말한다.

⑥ 중은 그 집이 침몰할 것을 예언하고 병풍산으로 아기를 업고 오르되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뒤돌아보지 말 것을 당부한다.

⑦ 정승집이 함몰하자 이정승은 미향의 탓으로 여겨 칼을 빼들고 그녀를 쫓았다.

⑧ 벽력이 쳐 뒤를 돌아보다 미향은 바위로 변한다.

⑨ 이정승의 칼이 바위에 닿자 칼이 두 동강나서 하나는 정승 하나는 하인들의 목을 쳤다.

⑩ 그때 솟던 물은 연집강이 되어 지금도 흐르고 미향이 화한 바위는 '각시바위'라 불리워진다.

〈장자못〉전설은 우리나라에도 남북한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 민담의 하나인데, 여기서는 마음씨 나쁜 이정승이 등장하여 천미향과의 대조적 선악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금기를 어긴 죄로 미향이 바위로 변한 외에 그 바위(여인)를 치던 정승의 칼이 부러져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복합구성을 지니고 있다. ① - ③은 장자못전승의 원형과 같다. ④ - ⑤는 미향의 패배와 칠성과의 부부관계(꿈)를 통한 순정을 이정승과의 대등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⑥ - ⑨는 이정승이 스스로의 폭행에 의하여 파멸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⑩은 증거물 제시를 통해 신빙성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지역적 배경을 연길(지척소)·병풍산·연집강으로 하여 전승의 배경으로 삼고 있음도 특기할만하다.

26) 천지의 맑은 물(길운 수집), 1962.



(김범룡구술)<sup>27)</sup>

조선족 사이에 전승되는 설화는 이밖에도 중국민족 간에 전승되는 <맹강녀>·<백사전> 등의 작품들이 많으며, 중국과 조선족과의 관련을 말해주는 <주원장과 리성계>·<태원의 세가지 보배>·<구석편과 용녀>등의 설화도 상당수 찾아볼 수가 있다. <동해바다에는 어쩌서 작은 상어가 생기게 되었는가?>(김덕순 구술)는 진시황제에 항거한 조선족 여인 <조롱박>의 정신을 그대로 잘 표현해주고 있다.

- ① 옛날 동해바닷가에 조선족 여인인 조롱박처녀가 살았다.
- ② 조롱박여인은 바람에 날려간 비단부채를 찾으러 우물에 들어갔다가 장성의 부역을 기피해 숨었던 총각을 만난다.
- ③ 둘은 혼인을 한 후, 남편은 장성의 부역에 동원되자 아내는 그를 기다리다가 남편을 찾아 진시황을 찾아간다.
- ④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확인하고 진시황을 저주한다.
- ⑤ 진시황은 조롱박여인을 설득하여 첩을 삼으려하나 그녀는 남편을 후히 장사지내고 첩으로 맞는 잔치를 요구한다.
- ⑥ 조롱박여인은 소원을 이루고는 자결하여 남편에 대한 정조를 지킨다.
- ⑦ 여인의 시체는 찢겨져 무수한 새끼상어가 되어 반항한다.

<조롱박처녀>에서 보면 조선족 여인과 장성에 동원되었던 총각 그리고 힘의 상징인 진시황의 삼자관계를 통하여 한중관계를 구도로 설정하고, 여인이 남편을 위하여 자결함으로써 절개를 지켜 조선족 여인의 순결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몸이 찢겨져 새끼상어가 되어 반항하는 모습을 통하여 현실과 비현실의 대조적 힘의 역학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맹강녀>의 조선적 변종설화로 대표적 작품이라 하겠다.<sup>28)</sup>

앞에서 <홍승과 인삼>·<인삼처녀>·<나비한쌍>·<각시바위>·<동해의 상어>의 몇편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각각 <나중미부>·<양산백과 축영대>·<장자못전설>·<맹강녀설화> 등과 같은 유형의 작품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본형이 지역적 조건이나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 수정·변개되어 재창작된 흔적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설화의 변이현상은 곧 조선족 이민의 개척적 의지나 미학을 보여주고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7) 민간문학자료집 3, 중국민간문예연구회연변분회, 1982.

28) 김덕순구술(金德順古事集), 1983.

## VIII. 맺는 말

지금까지 중국 조선족설화의 특징을 중심으로 대략 다섯 항목에 걸쳐 논술하여 왔다.

먼저 가장 이 지역 설화의 특색이 드러난 것으로는 식물설화(꽃)를 들 수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오누이를 구하고자 하는 오빠의 희생정신과 관련된 <진달래>, 키잡이소년과 장 잘담그는 소녀의 사랑을 형상화한 <백일홍>, 외적의 침해로 남편을 잃은 민들너의 수난을 상징한 <민들레꽃>, 뱀신랑과 봉선화의 사랑의 역정을 담은 <봉선화>, 남편을 잃고 애절하게 죽은 여인의 혼이 전생한 <할미꽃> 등의 다섯 작품을 통하여 식물설화의 내용을 그 의미성과 함께 살펴보았다.

둘째, 조선족 이민이 개척한 지역과 관련되는 지명설화를 논술하였다. 해(海)와 난(蘭)의 결혼과정을 통하여 역사적 향수를 간직한 <해관강>, 지계꾼과 천사의 삶의 터전을 일군 설화 <용천굴>, 도문강·압록강·송화강의 내력을 설명하는 <천수설화>, 공주의 도움으로 흑룡을 격퇴하고 백장수로 하여금 샘물을 솟게 한 <천지>, 어부의 거울찾기를 통해 발해의 슬픈 역사를 간직한 <경박호> 등 지명전승을 통해 개척적 고난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셋째, 본격담 가운데서도 인간관계를 통하여 설화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가난한 가정의 며느리·시아버지와 청년의 관계를 통하여 간도지역 이주민의 초기 개척사를 보인 <은혜>, 원필(선)과 은필(악)의 대결관계에서 끝내 백두산 인삼노인의 심판으로 원필의 고난을 행운으로 바꾸어준 <갈지 않은 두사람>, 효성스런 며느리를 산삼밭으로 인도하여 시아버지의 병을 고치게 한 <백년삼>, 대장장이 총각을 남편으로 택한 여인이 육형제의 아들로 하여금 사또의 나쁜 행실을 고치게 한 <륙형제> 등은 이 지역 설화가 지닌 인간관계의 특성을 살피는데 중요한 작품이다.

넷째, 이 지역 설화가 지닌 시대적 상황의 반영을 일제하의 항일설화에서 살필 수 있었다. 항일 유격대가 산삼을 얻어 병자를 구출하고 왜병을 격파한 <해갈삼>, 무명청년과 항일유격대의 제후로 왜군을 무장해제한 <씨름판에서 있는 일>, 역시 왜군을 죽이고 유격대에 가담한 영웅적 인물사를 다룬 <박지형>, 그밖에 <정찰반장 김봉숙>·<별천지>·<올가미전투> 등도 모두 항일유격대와 사회주의의 제후를 다룬 이 지역 특유의 지역설화들이었다.

끝으로 우리설화와 중국 설화와의 지역적 변이현상을 살폈다. <홍송과 인삼>은 <나중미부>형의 변형으로 양반관계의 갈등이 개재되어 다시 백두산에 돌아가 남자는 홍송, 여자는 인삼으로 변모하는 선종(善終)으로 처리되고 있다. <나비한쌍>은 <나중미부>형에다 <양산백설화>가 개재되어 여인과 사또와 설중새의 삼각관계에서 나비로 화한 부부의 영혼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 <각시바위>는 <장자못전승>의 변형인데, 이정승과 칠성과 미향의 삼각관계를 통하여 이정승이 파멸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변모되고 있다. <작은 상어...>도 진시황과 조롱박처녀·남편의 관계를 통하여 중국과 조선을 관련지어 이주민들의 개척적 의지(정절)를 양국의 지역적 배경을 통하여 형성시켜주고 있다.

중국 조선족설화는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화자의 대부분이 한반도에서 이주해간 사람

들이므로 상당량의 설화는 국내에서 전승되는 것들과 동일한 작품들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화들이 통시적·공시적 변화로 인하여 많은 화소들의 변모를 가져와 조선과 중국을 배경으로 변형된 작품이 상당수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를 인정할만한 작품으로는 간도지역을 중심으로 이주 개척기의 창의적 모티프들만으로 형성된 새로운 작품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작품의 대다수는 청나라 말엽이나 일본 침략기를 거치면서 강자와 약자, 선과 악의 대결구도로 나타나며, 후자의 경우는 일제와 사회주의의 대결구도로 되어 있어 이주민들의 개척정신과 저항 투쟁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담의 경우 여러 유형의 작품들이 중국의 그것과 결합하는 동안 혼혈적 요소들이 가미된 작품들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부 록

## 작품목록 일람

1) 인삼처녀, 연변인민출판사, 1962, 길은 수집정리.

‘환양주’ 한 병 / 천지의 물 / 만년 보리 / 인삼 처녀 / 불 옷 / 앵무새와 현관 / 룡형제 / 백일홍 / 해란강 / 인피고 / 누령 준마의 이야기 / 호니친부와 금발 처녀 / 가노의 이야기

2) 천지의 맑은 물, 연변인민출판사, 1962, 길림 민간이야기.

천수 / 물 / 용천 / 골 / 박지형 / 봉선화 / 신랑신부 / 힘 센 총각 / 목동과 공주 / 선량한 바위 / 금 송아지 / 보쌈 막은 총각 / 도적질 잘 하는 사람 / 소는 어째 “이라”하면 가는가? / 나비 한 쌍

3) 백일홍, 연변인민출판사, 1979, 길은 정리.

천수 / 해란강 / 용천골 / 신랑의 옷 / 이라 / 행주치마 / 힘센 총각 / 박마누라 / 백일홍 / 네형제 / 새털옷 / 보쌈 막은 총각 / 봉선화 / 같지않은 사람 / 목동과 공주 / 망두석재판 / 나비 한쌍 / 룡형제 / 흑달린 두 늑대 / 임금의 귀는 말귀 / 견우 직녀 / 우물안의 개구리 / 금송아지 / 류기장집의 야화 / 눈 / 의적 / 사흘 사또 / 각자는 무상치 / 수화상극 / 때아닌 가을 / 주먹재판 / 천냥내기 거짓말 / 별천지 / 씨름판에서 있는 일 / 어머니의 마음 / 울가미전투 / 박지형 / 경찰반장 김봉숙

4) 천도복숭아, 연변인민출판사, 1980, 김례삼 정리.

꿀꿀돼지 / 흑 똥 이야기 / 거짓말 잘하는 소년 / 두 형제 / 막내딸 / 천도복숭아 / 사냥꾼과 까치 / 말하는 남생이 / 승천한 옥이 / 꽃신 한짝 / 쥐와 꿀벌과 거미

5) 사랑산, 연변인민출판사, 1982, 박창묵 수집정리

박의협 / 말발굽산 / 남성 / 할미꽃 / 비겁한 사람 / 스승을 다시 찾아가다 / 밥 한술, 말 한마디 / 금덩이와 형제간 / 남생이의 줄당기기 / 금덩이와 돌담 / ‘과부’가 장가들다 / 황금몽 / 거위똥 속의 진주 / 명약은 명약이야 / 의좋은 형제 / 통소 / 주먹맛 / 숙종대왕과 홍서방 / 근심없이 산 로인 / 전백록 / 사랑산 / 황진사와 그의 딸 / 북두칠성 / 지혜겨름 / 셋째딸네 집으로 가다 / 가슴에 맺힌 원을 풀어준다 / 살인 한 중을 처단하다 / 효자 / 그림한 장 / 백정의 아들 / 이밥과 콩밥 / 범의 위풍을 빈 여우 / 투금진 / 효녀 / 룡궁에 갔다 오다 / 화목한 가정 / 형제사이 / 운봉전 / 효자의 불효 / 고기장사 / 세 병신이 한 동리를 지나다 / 모자간의 깊은 정

6) 배뱅이굿, 룡녕인민출판사, 1982, 장동운 정리.

배뱅이굿 / 민요춘향전 / 초부와 선녀

7) 민간문학자료집(3), 민간문예연구회 연변분회, 1982.

백두폭포 / 천지수 / 세 자매 강 / 옥설봉 / 칠선녀와 마디풀 / 장백산 령지 / 보마성 / 각시바위 / 경박호 / 장사늬 / 적지 / 룡늬 / 남궁재덕 / 장승을 길들인 군수 / 임자없는 황금 백냥 / 거울을 깨어 랑군을 얻다 / 언어식과 공주 / 박어사 출도 / 큰코 다칠라 / 사또가 고른 세 종 / 친구 / 혼장과 제자 / 대문소 / 덩덕새 / 쪽지계소금장사 / 금광새 / 도적과 주인 / 냄새를 잘 맡는 선생 / 돌각담 속의 선약 / 아버지의 유언 / 쪽지게 장군전 / 김서방과 구형제산 / 함홍차사 / 부마생질 / 한 가정의 인심 / 량심 / 백사슴 / 머슴군 / 환생초 / 초부와 꽃분이 / 화목한 가정 / 쏟아진 물 / 사또의 안해 / 재벌가죽 / 금구랭이 / 백정의 아들 / 소동이 왕의 장기수를 도왔다 / 효부 / 조카에게 망신당한 삼촌 / 민심과 천심 / 의좋은 삼형제 / 며느리 덕에 량반행세를 한 최서방 / 999석군과 천석군 / 명의 / 아들 삼형제 / 해와 달(1) / 해와 달(2) / 오형제 집안의 만머느리 / 남선부의 괴사 / 서울랑반 /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가? / 광대감 인재를 구한 이야기 / 장씨소년과 두루마기 / 금을 탐내던 부자 / 시어머니와 며느리 / 아버지의 병을 고친 아들 / 도적의 회개 / 효자골 / 우둔동이와 령민동이 / “이 문둥아!” / 아들의 한탄 / 농부의 뜻이 / 쓰고 단 것은 맛을 봐야 안다 / 기러기 / 지신제의 유래 / 임신부에게 왜 문어를 먹이지 않는가? / 환갑잔치의 유래 / 한 은사의 위국충심 / 호미로 좌수의 손목을 동인 김응서 / 리성계의 꿈 / 숙종대왕 / 사명당 / 룡곡선생 이림의 유래 / 오성대감 / 유정승의 일화 / 삼천 갑자 / 동방작 / 박꽃 / 담배 / 봉선화의 유래 / 오수나무 / 감자의 몸에는 어찌서 눈이 그처럼 많은가? / 가을 고추는 왜 빨강나? / 벼, 보리, 조와 돌피 / 메밀이야기 / 열콩, 팔과 콩 / 은어 / 최총각새 / 소쩍새 / 더 다들것이 없게 되었다 / 다람쥐한테 빌고든 범 / 두꺼비의 충고 / 아침을 굶은 부자 / 모기보고 환도를 빼들다 / 거짓말 세마디 / 십리탕 / 제 죽을줄 모르는 음양가 / 철부지 / 벼슬아치의 옷 / 나머지 아홉째는 후일에 / 다시 찾은 송편 / 짚신장사의 생각 / 천석자루 / 옳은 판단 / 장승과 흑쟁이 / 초가집과 기와집 / 죽은 범 놓고 다시 판정

8) 연변의 견우직녀, 연변민간문학연구회, 1982.

백조구 / 의적 / 사냥꾼과 수전노 / 마음씨 착한 바위 / 소년과 임금님 / 은망아지 / “보쌈”의 악습을 없앤 짧은이 / 인삼이야기 / 금송아지 / 밤에 우는 대나무 / 사악한 기운을 막다 / 금봉어처녀 / 봉선화 / 홍송과 인삼 / 형제 / 목동과 공주 / 금분과 옥분 / 세 딸 / 신묘한 땃돌 / 망두석을 심판하다 / 솜씨좋은 목수 / 백일홍 / 진달래 / 세 쌍둥이별 / 신랑의 옷 / 할미꽃 / 견우와 직녀 / 민들레꽃 / 석송 / 수수 / 오곡제 / 해란강 / 경박호의 유래 / 호두산 / 장생초 / 힘 센 짧은이 / 말하는 거북이 / 술이 솟아나는 그림 / 종달새 / 총명한 왕후 / 모자의 깊은 정 / 이러한 법관 / 어리석은 까마귀 / 박쥐의 재주 / 참새와 파리 / 족제비의 맹세 / 지렁이와 개구리 / 흑곰의 피에 넘어간 고양이 / 사냥꾼이 된 산양 / 토끼의 꼬리는 왜 짧은가 / 오소리와 너구리 / 어미 양의 각성 / 겨울에는 왜 메뚜기가 없는가 / 종달새는 왜 늘 노래부르나 / 지렁이와 굼벵이 / 마음씨 나쁜 곰의 종말 / 고슴도치와 호랑이 / 미꾸라지와 모래무지 / 메아리 / 고양이와 쥐 / 변치 않

는 마음 / 황금 천냥으로 노인을 사다 / 선도 / 아버지의 유언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 당나귀를 어깨에 매고 가다 / 나막신과 소 여물통 / 조문 / 신임 현관, 달빛을 사다 / 천냥 황금의 거짓말 / 흑 돌 달린 노인 / 쌀은 나무에 열리는 것이다 / 뽕 달린 것은 윗나가 없다 / 삼일 사또 / 바람과 태양 / 개와 고양이 / 잔피 부린 당나귀 / 수탉과 여우 / 피리새와 개미와 매뚜기 / 나비의 구혼 / 영리한 토끼

9) 삼태성, 연변인민출판사, 1983(재), 김명한 수집 정리.

종녀 / 박서방과 도깨비 / 은혜 / 통소 / 삼태성 / 초동의 재판 / '매 눈' / 빈집의 비밀 / 우둘이 / 달이 둘로 보이면 출세한다 / 장재비늘과 광주리바위 / 문짜기 / 나무군과 세 건달 / 같지 않은 두사람 / 처사의 딸 / '호환' / 남잡이가 제잡이 / 민들레꽃 / 산 정과 죽은 정 / '독장사 구구' / 서춘보 / 바다구경 / 지성감천 / 참회 / 까마귀고기 / 홍승과 인삼 / 어머니의 유언 / 밀방 사약 / 복수 / 이빨나무와 소나무

10) 짜개바지(상·하), 료녕인민출판사, 1984.

양주목사 / 사위감고르기 / 귀락당과 당나귀 / 우의정의 셋째딸 / 버들잎 / 팔자땀 / 득을 보려던 가시애비 / 어비 / 신유복 / 개다리 / 배사공처녀 / 약초 / 사또가 고른 세 종 / 팔모여의주 / 떡이야기 / 메밀병 / 신기한 복숭아 / 돌이 / 산포수 천덕이 / 부모 팔시가 제 팔시 / 개구리 서울구경 / 복둥이와 민둥이 / 어사된 숫쟁이 아들 / 백년삼 / 짜개바지 / 금병아리 / 하수바가지 / 항아리에 물린 지주 / 금붕어아가씨 / 총명한 돌이 / 도라지 타령 / 금수탉 / 현명한 재판 / 도적벼슬 / 듣지 / 별각선생 / 아랑이 / 고래장 이야기 / 서월이와 재복데기 / 사천고을 원님과 백씨부인 / 총명한 왕후 / 아리랑

11) 불로초(상·하), 료녕인민출판사, 1984, 리룡득 수집.

총명한 딸 / 거울을 깨고 랑군을 언다 / 우의 / 생금 한덩이 / 부자놈을 골탕먹인 젊은 총각 / 포수총각 색시감을 고르다 / 뽕죽금 한덩이 / 비천한 자 가장 총명하다 / 욕심 사납던 두 부자 / 닭알 빼앗아 먹고 송아지를 떼우다 / 목숨 떼운 부자 / 온전 백냥 / 이상한 대통 / 총명한 안해 / 도교를 댔던 네사람 / 색시 그루는 다홍치마적에 / 가장 총명한 신랑감 / 린색한 지주 / 세 정승의 회고담 / 보배구슬 / 석돌이와 부자 / 어사 박문수의 이야기 / '까만밤' 세말에 삼천냥 / 두 형제 / 연분홍 나팔꽃 / 복두칠성 / 가정인심 / 천냥 금으로 늙은이를 사다 / 약수 / 불로초 / 신랑감을 튀겨 고르다 / 머슴과 부자 / "밥가마 안에 흙을 치자고 그럽네다." / "량반의 쌀로 이럴 법이 있습니까?" / "에익, 날도적놈 같으니라고!" / "별걱정을 다 하십시오" / 궁냥 좋은 셋째 며느리 / 효자떠보기 / 장날의 유래 / 승천했던 막둥이 / 백년삼 / 팔모여의주 / 숫쟁이 총각께 목떼운 사또 / 해갈삼 / 개한테 고기를 떼운 서생 / "쌀은 쌀나무에 열리니라." / 호미 이야기 / 제 궤에 제 속다 / 매돌지고 나귀타다 / 두 사돈의 부채질 / 새끼낳이를 하는 함지 / 입총으로 범을 쏜다 / 장기봉 / 천하 / 칠선녀와 마디풀 / 령지 / 쇠자새 / 청량샘 / '최총각보고졸' 새 / 소쩍새 / 대구와 가재미 / 그제야 깨달은 어미양 / 수개구리의 울음주머니 / 부영이의 재판 / 두꺼비와 쥐 / 박어사의 덕행 / 봉의 김선달의 이야기 / 량반을 골려주다 / 엿을 안겨놓고 못매질 / 집주인을 패주다 / 평양감사께 편지하다 / 남초시의 이야기 / "상시관이 매관했소!" / 부자의 귀뺨을 철썩 치다 / '거저개'를 거두다 / 전백

록의 이야기 / “군이 돌아왔습니다.” / “저는 수탉이올시다.” / “제가 아버지질 하지요.” / “정말 그런줄로 전갈입니다.” / “저는 주검이올시다” / 문상 앞서 축하 / 학자 최춘물의 이야기 / “언제 그런 리치에 다 통했소?” / “알없는 안경도 보이는가!” / “외상으로 팔지 말지어다.” / 부자를 마음껏 희롱하다 / “황소는 알속에서 가나오이다.” / 뺨 얻어맞은 사또

12) 민간문학자료집(4), 민간문예연구회 연변분회, 1984, 박창묵·김태갑·김재권 수집.

\* 흑룡강편

리춘보 / 화목한 가정(1) / 화목한 가정(2) / 방학진에 대한 이야기 / 가짜사주팔자 / 망태기 / 효부종 / 선비와 시골로인 / 뺨을 잡은 이야기 / 숲장사총각 / 피있는 동생 / 박어사와 시골총각 / 김선달과 백두산산신령 / 고마운 사람 / 특특이 / 아버지를 구한 아들 / 황희정승 일화 / 거지가 된 군수 / 어리석은 자식 가르치기 / 동자의 피 / 시골선비 / 오성대감의 일화 / 리현령과 김진회 / 병조판서가 된 머슴 / 천냥을 주고 로인을 사다 / 친어머니보다 나은 계모 / 가짜풍수와 풍수 / 시골아이 중원에 가다 / “어느새 주역을 통달했구나” / “고녀석도 주역을 통달했구나” / 초부와 임금

\* 료녕편

두 아들 / 손병사의 어머니 / 동자재판 / 효성스러운 며느리 / 상가승무로인탄 / 시골녀인한테 매를 맞고 과거에 급제하다 / 각쟁이우에 상각쟁이 / 살인자는 류삼공 / 류공업을 잡아낸 원님 / 효부 / 리완 / 신의를 저버린 어머니 / 글벼락을 맞은 강구 / 귀신은 없다 / 천냥내기 거짓말 / 효자 / 금비녀 / 구대자손을 구한 로인 / ‘귀신’을 다스린 이야기 / 아들의 피 / 총명한 아이들 / 파경노 / 장인의 버릇을 뎌 사위 / 리두항 / 광산 삼장령 어머니 / 원두표 / 바보사또 / 자명고 / 철산팔병사

\* 길림편

부자상봉 / 리순신장군의 지혜 / 대마도의 번대머리와 행주치마 / 김치원 / 두 로인 / 어사와 등짐장사 / 혈연 / 중놈의 버릇을 떼다 / 정약포의 이야기 / 아버지를 구한 딸 / 오누이의 효성 / 양자와 딸 / 효자효부 / 어사놀이 / 두 형제 / 병조판서가 되다 / 거인 / 장끼아들과 착한 안해 / 두꺼비아들 / 효부(1) / 서자 / 백날 이야기잔치 / 형제 / 리관찰 / 선비와 총명한 아이들 / 아버지의 평생소원 / 불가사리 / 보쌈 / 소금장사와 그의 아들 / 효부(2) / 개와 고양이 / 죄는 지은데로 간다 / 청상과부와 호랑이 / 리성계가 도움을 정하던 이야기 / 황희정승의 시비 가름 / 숙종대왕과 과객 / 숙종대왕과 국사

13) 바우들과 현부인, 료녕민족출판사, 1985, 박창묵 수집.

심산에 피어난 꽃 / 최팔남의 누이동생 / 명관 / 갓방전에 통버선 / 말에 달린 송아지 원님 / 재간있는 형제 / 바우들과 현부인 / 엉터리심판 / 불효딸이 효부된 이야기 / 의구비 / 공은 닭은 데로 간다 / 거짓말 세 마디 / 초부와 꽃분위 / 피있는 거인 / 지성 / 어리석은 자식 가르치기 / 흥언필 / 고을군수와 호랑이 / 진짜 량반 / 런실전 / 저승길 / 해바라기 / 개나리 / “버선은 물러갑니다” / 주지를 처단한 동자 / 뼈꼭새 / 개미와 비둘기 / 할아버지와 손자 / 훈장의 글월 / 리방의 아들 / 터자리 / 김선달과 백두산산신령 / 이상한 목지 /

리춘보/장보러 떠난 선비/장을 빌어먹은 군수/시골사람의 미덕/망태기/“아따가 불수”/박어사와 등짐장사/아버지와 딸/달래와 미륵부처/선동이와 후동이

14) 소년부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5, 김재권 수집 정리.

소년부사/암행어사/지혜롭게 강도무리를 잡은 소년/피많은 돌이/정성/‘산범’의 뺨을 때린 시골소년/쌍둥이의 지혜/지주를 골탕먹인 꼴머슴/우둔둥이와 령민둥이/지혜있는 신라의 어린이/사주팔자

15) 팔선녀,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7, 림승환·한광일·서종식 정리.

차병결과 그의 옛이야기/팔선녀/구두령과 구룡담/도함자유래/무학의 전설/백두산아래 첫동네의 유래/강원도포수/금제의 이야기/인호이야기/칠형제와 여우동생/왕거지/금강상 굿구이총각/활랑과 대감의 아들/제자를 장가들인 혼장/정승의 딸을 얻은 총각/황정승이 아들을 장가보내다/홍감사 금강산구경/우대방과 김정승의 딸/잡놈 김달수/봉이 김선달/‘까막술’/조짜보 유짜보/접적궁 부채/망신당한 사또/고약한 사또/꿀강아지/지혜로 원이 되다/꾼으로 천냥빚을 갚다/중매군 참대/가짜량반/송아지를 떼운 부자/황통쟁이 부자님/항아리와 량반/머슴과 보물/총명한 동자/재간둥이 세 총각/천냥내기/총명한 난쟁이총각/중의 아들인 원님/거짓말 잘하는 총각/총명한 백정의 아들/거짓말쟁이와 욕심쟁이의 끝장/여의주/생금 한덩이/금 천냥/소금장사와 쪽지계/은혜같은 령혼/사위 고르기/“강냉이를 다 먹은 모양이구나”/금두꺼비/범한테 물려죽은 중/도깨비감투/소금장사와 난봉군/혹심먹은 친구/복구렁이/욕심쟁이/백두산 신령/렬녀와 김서방/일야숙에 천냥/남잡이가 제잡이/금전을 탐내던 사위와 딸/도적놈에게 안해를 빼앗기다/인간백정과 화냥년/기생과 대감집 아들/돌각담속의 불사약/하루살이 량반/매돌을 지고 나귀를 탄 선비/안해의 버릇을 떼다/어머니와 아들/시아버지와 며느리/악독한 시에미/귀신을 물리친 며느리/최계순의 비사/두 친구/포수와 그의 세 아들/도깨비에게 홀린 총각/봉사가 장가들다/이무기와 효녀/보쌌/‘수명당’/산소동토/‘과부’가 장가들다/동자삼/새며느리와 동자삼/“방초야!”/천년두굴에 쌍룡수/인삼에 깃든 이야기/효자, 효부, 령녀/천냥 금으로 늙은이를 사다/뉘덕이나, 내 덕이지/멍청이/머저리동생/멍청이동생/식충이/바보/세 병신. 의형제/천치사위/귀머거리령감/세 귀머거리/도박군과 범/취가 물어온 보물/신세같은 까치/호랑이와 총각/취가 은혜같은 이야기/노루와 돌쇠/피많은 토끼/두더지의 혼인/불에 타죽은 범/음흉한 승냥이/황소와 소똥구리/표범과 개똥벌레/살모사와 참새/피많은 암탉/게으름뱅이 새끼산양/고양이목에 방울 달아준 쥐/게으름뱅이 새끼산양/고양이목에 방울 달아준 쥐/쟁내비 밀구멍은 왜 빨간가?/메추리는 왜 꼬리가 없는가?/토끼꼬리는 왜 짧은가?



## 16) 파경노, 민족출판사, 1989, 김재권·박창묵 정리.

옥섬탄 / 절구통을 재판한 원님 / 시골선비와 팔죽장사할미 / 금강산신선이 된 나무군총각 / 10년뒤에 처가로 다시 가다 / 효자와 감 세알 / 호랑이처녀와 호원사 / 말 잘하는 리방의 실수 / 산이 절구를 삼키고 물이 구슬을 토하다 / 안장왕과 구슬아기 / 효자와 호랑이 / 파경노 / 총명한 녀인 / 남산 / 은혜값은 뱀 / 도미와 그의 안해 / 귀돌이와 천문도사 / 두 선비 / 며느리 글덕을 입다 / 제 색시를 찾아 장가들다 / 설랑과 가실이 / 구렁덩덩 선비 / 해와 달 / 걸교질의 유래 / 만며느리 / 보리밭만 지나도 취한다 / 한식의 유래 / 우는 애를 문밖애 내놓지 않는다 / 사람집에 손님이 안오면 집안이 망한다 / 망평귀안과 전안례 / ‘호미남방’ / <오신수>와 <오갈피>에 깃든 이야기 / 에밀레종 / <옥루몽>에 깃든 이야기 / <동의보감> 침구편에 깃든 이야기 / 단군 / 고주몽 / 박혁거세 / 선덕여왕의 예언 / 술겨와 로송도 / 최치원의 이야기 / 왕건 / 역동선생 / 불가사리 / 주원장파 리성계 / 산정기를 타고난 황희 / 황희정승의 일화 / 성삼문의 이야기 / 신사임당과 <초충도> / 화석정 / 숙종대왕의 일화 / 소년부사 / 남씨부인의 원을 풀어준 박문수 / 구석편과 룡녀 / 태원의 세가지 보배 / 마릉도상에서 일만대의 화살을 앗기다 / 지은보은 / 손숙오의 음덕 / 리백의 일화 / 한장 편지로 나라기개를 떨치다 / 글 잘하는 소소매 / 두목지의 일화 / 결초보은 / 그림속의 미녀 / 화공과 선비 / 안해덕에 정승되다 / 종의 의리 / 오위장이 된 시골선비 / 효자 / 명이가 된 돌파리의원 / 두 번대거리 중의 래력 / 시골선비와 반오 / 배은망덕 / 룡을 잘하는 임금 / 토끼와 거부기 / 효자와 금붕어처녀 / 나무군총각과 말하는 남생이 / 금방망이 / 흑페러 갔다가 흑을 붙여왔다 / “왕의 귀는 나귀귀다” / 궁냥깊은 거부기 / 봉의 김선달의 이야기

## 17) 고산장군, 연변인민출판사, 1989, 정영석 수집 정리.

어머니와 아들 / 부엌돌이 / 백사슴 / 포수와 장재비 / 턱턱이 / 두꺼비의 충고 / 측은이 / 금덩이 / 메추리와 핑 / 고산장군 / 황소와 멍멍이와 수탉 / 림기웅변 / 개미와 메뚜기 / 대왕과 나무군 / 머슴군과 량반

## 18) 백두산전설, 조선민족사, 1990, 리천록·최룡관 수집 정리.

홍선천 / 방학대 / 녀진의 제사대 / 온천 / 신선봉 / 견우교 / 천녀욕궁처 / 선녀폭포 / 백운봉 / 왕늪 / 삼신소녀 / 신선꽃사슴이야기 / 옥장천 / 관일폭포 / 인삼과 꽃사슴 / 인삼굴 / 천지 / 천지속의 룡궁 / 룡을 동여맨 돌기둥 / 백두폭포 / 천지를 기운 돌바늘 / 망부석 / 내두산과 칠성봉 / 종덕사 / 백두산의 천기 / 붓나무와 만병초 / 보마성 / 송풍라월 / 금강봉 / 약수천 / 관일봉 / 소천지 / 록계동 / 와호봉 / 옥설봉의 선단

## 19) 조선민간전설,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0, 윤영·조정현·최응림 정리.

## \* 동명전설

계정동 / 리태원동 / 맹동 / 부암동 / 석성동 / 중동 / 청풍동 / 포교동 / 하가동 / 일월동 /

## \* 리명전설

강선리 / 고문리 / 금척리 / 김부리와 군량리 / 룡연리 / 룡산리 / 부암리 / 백로리 / 서울과 왕십리 / 석장리 /

설암리 / 수원리 / 신광리 / 정곡리 / 판정리와 판서동 / 패엽리 / 현암리 / 호산리 / 효자리 / 우산리 / 웅담리

\* 기타 지명전설

공삼담 / 금부영재 / 룡두촌 / 소고개 / 승과평 / 부조고개와 갓결재 / 자모산성과 왓새동 / 치성 / 혈모로 / 황득개 / 꽃섬

\* 산명전설

고달산 / 구월산 / 금패령 / 단발령 / 로적봉 / 설성산 / 성부산 / 수산과 화산 / 천신산 / 치악산 / 화장산

\* 강, 못, 샘, 온천에 관한 전설

구름샘 / 도마봉의 운림지 / 동래온천 / 룡마연 / 룡소 / 만광지 / 명연담 / 박연 / 백마강 / 서출지 / 장사못 / 주천 / 침인연 / 향랑연 / 호로천 / 효감천 / 효자샘물 / 영지 / 웅천 / 원소 / 원송이못

\* 바위전설

각시바위 / 거북들의 유래 / 고양이버위 / 기와바위 / 과부바위 / 대왕암 / 락화암 / 룡혈암 / 박바위 / 사랑산과 절부암 / 선녀바위 / 선녀바위와 온정터 / 선바위 / 치마바위 / 칠성암 / 행상바위 / 약산동대의 거북바위와 동자석 / 의랑암

\* 미혈전설

고달사의 쌀바위 / 내면산의 쌀바위 / 동혈사의 쌀나오는 구멍 / 성룡사의 쌀바위 / 장수산의 쌀샘 / 지암사의 쌀샘 / 우명사의 쌀샘

\* 석굴전설

금은굴 / 마십굴 / 제주모흥혈

\* 우물전설

기씨정 / 대정과 온화릉 / 만석동과 룡정 / 사명당의 우물 / 알영정 / 요내정

\* 정자전설

령남루하의 아랑각 / 세검정 / 포석정 / 호호정과 레벌루 / 해주 부용루 / 희우정 / 화석정 / 영벽정 / 월화정

\* 기타 풍물전설

김해의 부인당과 돌배 / 도깨비다리 / 발다리 / 세마대 / 천정대 / 탄금대 / 태종대 / 효불효다리

\* 사찰연기전설

굴불사 / 관음사 / 만복사 / 범어사 / 사나사 / 석왕사 / 심원사 / 주사사와 주사산 / 진관사 / 통도사 / 호원사 /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 오세암 / 왕흥사

\* 불상전설

관촉사의 미륵 / 대조사의 미륵 / 룡미리의 석불상 / 문수암의 석불 / 미타사의 열여섯라한 / 석굴암의 석불 / 속명사의 석불 / 어석리의 석불상 / 유점사의 오십삼불

\* 석탑전설

통도사의 사리탑 / 오누이탑 / 이차돈의 공양탑

## \* 고승전설

고운도사와 고운산/금단선사와 금단소금/귀진사의 목대사/사명당과 서산대사/소요산의 원효목과 옥류폭포

## \* 수업전설

패궁정과 십층탑/내금강의 흑사굴/망진산의 말무덤/보덕굴의 관음보살/불곡산의 석굴

## \* 효자렬녀전설

군은 절개의 상징인 홀어미산성/렘렬녀정문/비리동/석성면의 흙빛/조선다리/제주도 렬녀정문/천어효자/토끼바위/효자무덤/효자문/효자우물

## \* 시조전설

경주김씨/국사동 최씨/리씨의 시조/박씨의 시조/석씨의 시조/파평 윤씨/평양 채씨/어씨의 시조

## \* 기타전설

강팔령 송아지/경포호의 적곡조개/구왕굴과 도토리/굴바위의 지네산/김녕굴의 구렁이/제림사의 흰담/광정당의 구렁이/룡과 공검지/룡을 그리여/룡당포/명태의 래력

## 20) 朝鮮民間故事選(연변민간문학연구회), 상해문예출판사, 1982.

백일홍/진달래/삼태성/신랑의 옷/할미꽃/견우와 직녀/민들레꽃/석송/수수/오곡제/해란강/경박호의 유래/호두산/장생초/힘센 아이/말하는 거북/술이 나오는 그림/종달새/총명한 왕후/육형제/모자의 깊은 정/백조구/금과 돌담/의적/사냥꾼과 수전노/마음씨 착한 바위/소년과 임금님/은망아지/보쌌악습을 없앤 짧은이/산삼을 만난 이야기/금송아지/밤에 우는 대나무/사악한 기운을 막다/금봉어아가씨/봉선화/홍송과 인삼/두 형제/목동과 공주/금분과 옥분/세 딸/신기한 멧돌/망두석재판/목수이야기/변치않는 마음/황금천양으로 노인을 사다/선도/아버지의 유언/말귀를 가진 임금/당나귀를 메고 가다/나막신과 여물통/조문/신임현관 달빛을 사다/모두가 똑같다/천냥짜리 거짓말/멧돌을 지고 나귀를 타다/두 흑부리영감/쌀은 나무에 열린다/뿔달린 자는 윗나가 없다/삼일사또/바람과 태양/고양이와 개/어리석은 당나귀/수탉과 여우/황새와 개미와 메뚜기/나비의 구혼/영리한 토끼/이러한 법관/어리석은 까마귀/박쥐의 재주/참새와 파리/족제비의 맹세/지렁이와 청개구리/장끼의 울음/돼지는 왜 뿔이 없나/흑곰에게 당한 고양이/사냥꾼이 된 산양/토끼 꼬리는 왜 짧은가?/오소리와 너구리/어미양의 깨달음/개미와 비둘기/겨울에는 왜 메뚜기가 없나/종달새는 왜 늘 노래하나/지렁이와 굼벵이/마음씨 나쁜 곰의 종말/고슴도치와 호랑이/미꾸라지와 모래무지/메아리/고양이와 쥐

## 21) 吉林省 民間文學集成(연변조선족자치주고사)上·下(中文)

## 參 考 文 獻

- 연변조선족 자치주 개황(연변조선족 자치주 개황 집필소조), 연변인민출판사, 1984.
- 조선족구비문학개관, 조선족문학연구(김동훈), 흑룡강조선족민족출판사, 1989.
- 韓·中民譚의 比較(崔仁鶴), 형설출판사, 1982.
- 韓國說話文學研究(蘇在英), 송실대출판부, 1984.
- 中國朝鮮族 說話의 研究(崔仁鶴), 比較民俗學 4집, 1989.
- 중국조선족문학사(조성일·권철 주편), 연변인민출판사, 1990.
- 中國朝鮮族 在來說話의 變異考(崔三龍), 中央民俗 2집, 1990.
- 한민족에 있어서 백두산 설화의 의미, 고대민족문화연구소 학술회의 자료, 1990. 11.
- 在中韓族의 說話研究(金善豐) 韓國民俗學24轉, 1991.
- 在中韓族의 口碑文學研究(金善豐), 민속학회 67차 발표 요지, 1991.